黃 金 史 研 究 (一)

金 芳 漢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助敎授(言語學)

머 리 말

蒙文蒙古年代記. 蒙文年代記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를 研究할 때는 다른 것들과의 相互比較가 必然的으로 要求된다. 여기 翻譯하려는 黃金史(Altan Tobči)도 그러한 것中의 一種인 것이다. 그러나 各年代記에는 實際로 共通的인 部分이 많으면서도 또 一面 그것들이 各各 記錄되던 여러가지 條件과 歷史的인 背景으로 因하여 또한 差異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各年代記의 歷史的 背景에 關한 考慮가 必要하게 된다.

明末의 內蒙古는 左右 二翼으로 나누어지며 各翼에는 各各 三萬戶의 三國이——左右翼 合해서 六國이 있었으며 各國에는 各己 可汗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1].

右翼. ordos 萬戶
tümed 萬戶
qaračin 萬戶

左翼. čaqar 萬戶
內 qalqa 萬戶
qorčin 萬戶

이 六國의 可汗은 qorčin 萬戶를 除外하고는 全部 成吉思汗의 15世孫인 dayan čečen qavan(達延車臣汗)의 後裔인 것이다. 右翼에서 現 yeke ǰun(伊克昭)盟의 ordos 萬戶는 右翼親王(jinong)의 親部로서, 諸王은 dayan qavan 의 三男인 barsubolad 의 嫡統으로 代代 親王이라 일컬어졌다. tümed 萬戶는 ordos 東方 歸化城(köke qota)을 中心으로 하는 地方으로 順義王[2]이 支配하는데, tümed 는 barsubolad 의 次男 altan 의 所封으로 代代 gegen qavan 이라고 일컬어졌다. qaračin 萬戶는 tümed 의 東方 現 čaqar(察哈爾)·sönid(蘇尼將) 兩部에서 灣河流域에 걸친 領域이며, 諸

(1) 和田 淸, 東洋史研究(蒙古篇), p. 511.
(2) A. Mostaert & F.W. Cleaves; *Erdeni-yin Tobči*. Cambridge, 1956, p.12.

王은 barsubolad의 四男인 bayasqal의 系統으로 köndölen qaγan이라 일컬어졌다. 左翼의 čaqar 萬戶는 dayan qaγan의 長孫인 bodi alaγ qaγan의 子孫의 所領이다. 內 qalqa 萬戶도 역시 dayan qaγan의 五男인 aljubolad의 後裔들의 所領으로, 그들은 5部로 나누어져 그中 ǰarud部長이 代代 汗으로 일컬어졌다. 이와 같이 明代 內蒙古의 五國과 外蒙古(明末 外 qalqa에 併立한 三可汗인 ǰasaγtu qaγan, tüsiyetü qaγan, čečen qaγan들도 dayan qaγan의 季子인 geresanǰa의 血統이다)의 諸王은 全部 dayan qaγan의 子孫인데 各國에는 各各 많은 記錄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볼 수 있는 蒙文年代記中 明代에 撰述된 것이 確實한 것은 ordos의 成吉思汗의 靈廟인 이른바 nayiman čaγan(八白室)이라는 祭祀의 起源을 說明한 čaγan teüke 뿐이다[3]. 그러나 淸代에 이르러 明代의 蒙文記錄에 依據해서 여러가지 年代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蒙文年代記는 各各 著者의 主觀的 見解와 判斷을 反映하며 內容上으로도 相互 상당한 差異가 있으나 그것들을 大體로 明代의 各萬戶에 있어서의 記錄의 傳統을 保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을 考慮하면서 各蒙文年代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ordos의 年代記로서는 ügüsün部長인 saγan sečen 皇太子(qong tayiǰi)[4]가 康熙元年에 撰述한 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帝王根源寶貝史綱) 即 蒙古源流[5]가 있다. 이것은 現在 撰述年代가 確實한 年代記中에서 가장 오랜 것이다.

〔Ⅱ〕 다음에 tümed의 年代記로 생각되는 것은 國師 blo bzang bstan 'dzin kemegdekü guusi 著인 altan tobči kemegdekü šastir(黃金史綱), 即 Altan Tobči인 것이다. 1952年 美國 Harvard大學의 Yenching Institute에서 影印本으로 出版된 이른바 Altan Tobči Nova가 이것이다[6]. 編述年代는 確實하지 않으나 大體로 順治 12年頃으로 蒙古源流와 가까운 時代의 著作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內容面에서 본다면 記事나 年代도 蒙古源流와 相異한 것이 많고 蒙古源流 아닌 다른 史料에 立脚한 것

---

(3) A. Mostaert: *Textes Oraux Ordos.* Pekin, p. 12.

(4) A. Mostaert & F.W. Cleaves; *op. cit.*, p. 13.

(5) Ordos의 年代記 蒙古源流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刊本이 있다.
E. Haenisch; *Eine Urga-Handschrift des mongolischen Geschtswerks von Secen Sagang (alias Sanang Secen).* Berlin 1955, *Der Kienlung-Druck der mongolischen Geschichtswerks Erdeni yin Tobči von Sagang Secen*, Wiesbaden 1969. I.J. Schmidt; *Geschichte der Ost-Mongolian und ihres Fürstenhauses, verfasst von Ssanang Ssetsen Chougtaidschi der Ordus*, St. Petersburg-Leipzig 1829. A. Mostaert & F.W. Cleaves;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by Saγang Secen*, Cambridge, 1956.

(6) A. Mostaert &F.W. Cleaves; *Altan Tobči,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by blo 'bzan bstan.* Cambridge, 1952.

으로 생각된다. 이 Altan Tobči에 立脚해서 簡略하게 한 것이 無名氏撰 qad-un ündüsün-ü quriyangyui altan tobči(帝王根源要略黃金史綱)이며, 우리가 一般的으로 Altan Tobči 혹은 黃金史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며 여러가지 刊本이 있다.

〔Ⅲ〕 qaračin 系의 年代記는 雍正 13年 鑲紅旗蒙古都統 lomi(羅密)撰의 mongyol borǰigid oboy-un teüke가 있다. 이것은 元來 滿洲語로 記錄된 것인데 現在 볼 수 있는 것은 道光 19年 3月 15日附의 蒙古語譯[7]과 民國 23年에 張爾田이 刊行한 「蒙古世系譜」[8]라는 漢譯本뿐이다. 內容은 Altan Tobči와 共通된 部分이 많으나 紀年은 오히려 蒙古源流에 가깝다.

〔Ⅳ〕 左翼의 年代記로 čaqar에 關한 것은 gangga-yin urusqal이다[9]. 이것은 雍正 三年 üǰiümüčin(烏珠穆沁) 右翼旗 札薩克和碩車臣親王 čayan babai(察罕巴拜)의 孫인 Gombojab가 撰述한 것으로 그 內容은 가장 簡單한 것이지만 紀年과 內容이 獨自的이다.

〔Ⅴ〕 內 qalqa의 年代記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altan kürdün mingyan kegesütü (金輪千幅)로서 ǰarud 部의 siregetü guusi(國師) dharma가 乾隆4年에 撰한 것이며[10] 또 하나는 bolor erike로 bayarin(巴林)部의 Rasipungsuy이 乾隆 40年에 撰한 것이다[11]. 이 兩書는 記事內容이나 紀年이 gangga-yin urusqal과 共通된 部分이 많다.

〔Ⅵ〕 外 qarqa의 史書로 가장 오랜 것은 Bayamba erke dayičing 即 喀爾喀의 信順厄爾克載靑諾顏善巴가 康熙 16年에 著述한 asarayči neretü teüke이다.[12] 이밖에 撰人 年代未詳의 ǰalayus-un qurim[13]이 있으며 이것은 前記 asarayči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으나 內容 紀年는 ordos의 蒙古源流에 가깝다. 이 ǰalayus qurim에 많은 補充部分이 添加된 것이 無名氏撰의 sira tuyuǰi이다[14]. (註 21 岡田; ダヤン・ハカン年代, 參照)

黃金史. 우리가 一般的으로 Altan Tobči 혹은 黃金史라고 부르는 것은 위에서

---

(7) W. Heissig & C.R. Bawden; *Mongyol Borǰigid Oboy-un Teüke von Lomi* (1732), Wiesbaden, 1957.

(8) 博明; 西齋舊鈔蒙古世系譜五卷, 北平. 이것은 前記 W. Heissig & C.R. Bawden의 影印本中에 全文이 揭載되어 있다(pp. 95—123).

(9) Gombodzab, *Ganga-iin Uruskhal.* 1960.

(10) W. Heissig (ed.); *Altan Küdün Mingyan Gcgesütü Biičig, Eine mongolische Chronik von Siregetü Guosi Dharma* (1739), Kopenhagen 1958.

(11) A. Mostaert & F.W. Cleaves; *Bolor Erike, Mongolian Chronicle by Rasipungsuy*, Cambridge 1959.

(12) Byamda; *Asarayci neretü*, Ulaan baator 1960.

(13) W. Heissig; *Geschichtsschrebung*, Facsimilia, pp.86—111.

(14) N.P. Shastina (ed.); *Shara Tudzhi, Morgol'skaia Letopis'* xvii *veka*, 1957.

말한 바와 같은 Tümed의 年代記에 屬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版本이 있다.

1. G. Gomboyev; Altan Tobči Mongol'skaya Letops', b Podlinnom Tekste i Perevod Perevod lamy Galsama Gomboyeva, Sanktpetersburg 1858.
2. Činggis qayan-u čadig 1925, 北京 蒙文社(初版). Mongol Chronicle, Činggis qayan-u čidig including Altan Tobči(蒙文蒙古史記), 1940 (影印本).
3. Boyda Činggis qayan-u čidig. 1929 北京 蒙文社(再版).
4. 藤岡勝二, 羅馬字轉寫 日本語譯 喀喇沁本蒙古源流 東京 1940.
5. A.Mostaert & F.W. Cleaves; Altan Tobči,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Scripta Mongolica I), Cambridge 1952.

蒙文社의 初版本의 影印本이 Mongol Chronicle, Cinggis qayan-u Cidig, including Altan Tobči로서 出版所와 出版年月日이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大體로 1940年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15]. 그 再版本은 初版本에서 難解한 語句나 또는 意味가 明確하지 않은 낱말을 任意로 修正한 곳이 많아서 初版보다 오히려 正確性이 적다. 그러므로 譯者는 蒙文社의 初版本의 影印本을 底本으로 삼았다. 그것은 再版本이 原形을 가장 忠實하게 保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初版本을 基準으로 必要에 따라 다른 版本과 對照했다. 그리고 所謂 Altan Tobči Nov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嚴格하게 말하면 우리가 一般的으로 Altan Tobči라고 부르는 것과는 同一한 部類에 넣을 수는 없으나 Altan Tobči의 全體量의 約 8分之 7이 그대로 Altan Tobči Nova에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相互對照를 考慮하여 便宜上 같은 部類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이른바 喀喇沁本은 三章과 四章만이 Altan Tobči와 部分的으로 一致한다. Gomboev本은 部分的으로 밖에 參考할 機會가 없었으나 多幸히 Bawden의 勞作에서 다른 모든 版本과의 對照와 相互差異가 細微하게 提示되어 있기 때문에 異本對照의 수고를 덜어준다[16].

Altan Tobči(以下 黃金史라 稱한다)의 翻譯으로는 Gomboev가 最初가 아닐가 생각되나 그것은 最初의 黃金史翻譯이라는데 意義가 있을뿐 文獻 調査 및 其他 翻譯에 있어서 許多한 問題를 問題를 內包하고 있어 이미 開拓的인 價値밖에 없는

---

(15) C.R. Bawden;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Wiesbaden 1955.

(16) 蒙文年代記와 黃金史에 關해서는 적어도 다음 몇가지 文獻이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C.ž. žamcarano; *The Mongd Chronicles of the Seventeeth Century*, Wiesbaden 1955. A. Mostaert & F.W. Cleaves;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by Sayan Sečen*, vol. 1, Introduction, pp. 1—78.

(17) 山本 守; 聖成吉思汗の家譜, 卷一, I(pp. 39—46); II(pp. 35—45), IV(pp. 43—53). V(pp.38—43).

(18) 小林高四郎; アルタン・トプチ(蒙古年代記), 東京 1939.

것으로 생각한다. 그뒤 山本 守氏가 東洋史研究에 一部譯만을 發表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많은 誤譯이 있다[17]. 다음에 全體的 翻譯으로 小林高四郎氏의 蒙古年代記[18]가 出版되고(1941), 다시 그 改訂版「蒙古黃金史」[19]가 出版되었다(1941). 小林高四郎氏의 譯本은 그것이 完譯本이라는데 意義가 있으나 여러가지 缺點이 있다. 첫째 底本으로 正確性이 적은 蒙文社의 再版本을 利用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誤譯을 犯하게 되었고 또 Gomboev에 너무 依持했을뿐만 아니라 難解한 語句에 對해서도 Gomboev에 따르거나 혹은 恣意的인 翻譯이 많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보아 正確한 좋은 譯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小林氏의 譯本이 出版된 後에는 特別한 研究가 發表된 것 같이 않으며 또한 앞에 든 研究들도 現在로선 그다지 높이 評價될 것이 못되고 다른 外國學界에서도 별다른 研究가 없다. 그러던 中 近來 C.R. Bawden氏의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1955)을 보게 된 것은 黃金史研究에 있어서 一大飛躍이라 하겠으며 現在까지의 黃金史研究中 白眉라 하겠다. 特히 여러 異本을 對照하여 그 差異를 하나하나 提示한 것은 異本對照의 수고를 덜어주어 便利하며, 그 以前의 많은 誤譯도 是正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解決을 기다리는 많은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끝으로 小澤重男氏의 研究로 「Altan Tobči 研究」가 注目된다[20]. Bawden, 小澤 兩氏의 研究는 먼저 여러 版本을 對照했다는 點과 難解한 語句에 對해서 여러가지 角度에서 解決하려는 研究態度는 높이 評價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小澤氏의 研究는 全體量의 3分之1만이 發表되었을뿐이나 앞으로 남어지 部分이 계속 發表될 것을 期待한다.

元朝秘史에 比해서 黃金史의 研究가 從來 그다지 活潑하지 않았던 理由는 먼저 史料로서의 價値判斷에 基因하는 것으로도 생각되며 또한 語學的인 面에서도 元朝秘史보다 훨신 後世의 資料라는데 原因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黃金史의 蒙古語는 그것대로의 研究價値가 있으며 또한 蒙古의 神話·說話等 民俗學的 見地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임은 再論의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黃金史를 包含한 蒙文年代記가 史料面에서 再評價되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한 傾向이며[21] 이러한 點에

---

(19) 小林高四郎; 蒙古黃金史, 東京 1941.

(20) 小澤重男; Altan Tobči (黃金の史綴) 研究, 1 (東京外國語大學論集別册 3) 1953; 2 (別册 4) 1955.

(21) 「元來 中國學的傳統에서 成長한 日本學界의 態度는, 蒙古文獻의 傳承을 全的으로 否定하며, 오히려 風聞이나 臆測에 바탕을 둔 部分이 많은 明人의 所說을, 그것이 다만 漢字로 記錄되어 있다는 理由로 無批判하게 받아드리는 傾向이 强했다.……그러나 多幸히 現在 利用할 수 있는 蒙文史料에는 상당한 種類가 있고 各己 獨自的인 傳承을 包含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比較分析함으로서, 淸代撰述의 年代記類의 原據가 된 明代史料의 內容

서 蒙古年代記의 앞으로의 研究에 큰 發展이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譯者는 1964年 黃金史의 飜譯을 完成하고 修正을 加해오던中 今般 東亞文化에 몇차례에 나누어 全體譯을 發表하게 되었다. 譯者는 譯者대로 從來의 研究에서 問題되어온 句節에 對해서 새로운 解釋을 하고 그 一部는 이미 發表한 바도 있다[22]. 本譯者의 새로운 見解中 一部는 譯者의 解釋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一部는 새로운 解釋의 可能性을 提示하고 暫定的인 飜譯만을 提示한 것도 있다. 이러한 部分은 그것을 明示하고 앞으로의 解決을 기다리기로 한다.

黃金史와 다른 蒙文年代記와의 關係에 對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 있으나 特히 注目되는 것은 元朝秘史와의 關係이다. 여기 關해서는 이미 仔細한 研究가 發表된 바 있기에[23] 여기서는 더 以上 言及하지 않으려 하나 譯文에서 兩書의 關係가 必要할 때는 相互對照·說明될 것이다.

文獻. 底本은 蒙文社 影印本으로 하나 다른 版本과의 對照는 實際로 Bawden의 것을 利用했음을 밝혀둔다[24]. 重要한 參考文獻은 다음과 같다.

Mongol Chronicle, *Činggis qaran-u čidig, including Altan Tobči.* [**P1**]

A. Mostaert & F. W. Cleaves; *Altan Tobči.* [**U**]

藤岡勝二; 喀喇沁本蒙古源流. [**Q**]

C.R. Bawden;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B**]

蒙古世系譜. [世]

小林高四郎; 蒙古黃金史. [**KM**]

小澤重男; Altan Tobči 研究, vol. 1—2. [**OA**]

山本 守; 聖成吉可汗の家譜, 東洋史研究 1.1—1.5.

을 어느 程度 復原할 수도 있고, 이것들의 傳承을 無視하거나 故意로 歪曲하지 않고 適當한 解釋을 加해서 漢文史料中 믿을만한 것과 比較하면 蒙文史料의 最大의 弱點인 紀年上의 混亂도 解決되고, 從來 不明했던 事實도 밝혀질 수 있다.」 岡田英弘; ダヤン・ハガンの年代(東洋學報 vol. 48, pp.1—2).

(22) 拙稿, 「蒙古黃金史」考——몇 句節에 對한 새로운 解釋——李相佰博士回甲記念論叢(1964), pp.271—282.

(23) Bawden(註 15), Zamcarano(註 16) 參照. 特히 黃金史와 元朝秘史와의 關係에 對해서 Bawden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That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texts are most probably due to a common dependence on oral traditions is shown by an examination of similar passages of a second type. Bawden; *op. cit.* p. 15.

(24) 各 版本은 다음 略號로 表示한다. G=Gomboev 本, P_1=蒙文社 初版本 P_2=蒙文社 再版本, U=Altan Tobči Nova, Q=喀喇沁本.

W. Heissig & C.R. Bawden; *Mongγol Borǰigid Obor-un Teüke von Lomi* (1732).

I.J. Schmidt; *Geschichte der Ost-mongolen und ihres Fürstehauses, verfasst von Ssanang Ssetsen Chougtaidschider Ordos. St. Petersburg-Leipzig* (1829). [**SS**]

E. Haenisch; *Eine Urga-Handschrift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s von Secen Sagan (Alian Sanang Secen)*, Berlin 1955.

A. Mostaert & F.W.Cleaves;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Scripta Mongolica I), Cambridge 1956.

A. Mostaert & F.W. Cleaves; *Bolor Erike, Mongolian Chronicle* (Scripta Mongolica III), Cambridge 1959.

江 實; 蒙古源流, 東京 1940.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 Mongoles*, Cambridge 1953.

E. Haenisch; *Wörterbuch zu Manghol un Niuca Tobca'an*, Lepzig 1939. [**HW**]

Soothill & Hodous; *A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London 1937. [**S&H**]

J.E. Kowalewski; *Dictionnire Mongol-Russe-Francais*, Kazan 1849. [**KD**]

G.J. Ramstedt; *Kalmückisches Wörterbuch*, Helsinki 1935. [**RK**]

A. Mostaert; *Dictionnaire Ordos*, Peking 1941—1944. [**MO**]

A. de Smedt & A. Mostaert; *Dictionnaire Monguor-Francais*, Peking 1933.

A. Luvsandev; *Mongol Oros Tol'*, 1957. [**LM**]

Č.B. Čydendambaevaj; *Orod-Burjat-Mongol Slovar'*, 1954.

陸軍省編纂, 蒙古語大辭典 [**MJ**]

譯文. 譯文은 [OA]처럼 直譯을 提示하고 뒤에 따로 意譯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方法이라 생각되나, 本稿에서는 紙面이 制限되어 있기에 原文과 直譯 意譯을 個別的으로 提示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譯文은 될 수 있는限 原文에 忠實한 直譯을 主로했으나, 때로는 意譯해둔 곳도 있다. 그러나 意譯은 全體의 뜻을 把握하기에 困難을 느낄 때에만 限했다. 따라서 本稿의 譯文은 直譯과 意譯의 中間을 擇했지만 그러면서도 直譯에 가까운 態度를 取했음을 附言해둔다. 原文의 轉寫는 便宜上 P_1의 그것을 그대로 提示한다.

[飜譯]

成吉思汗의 系譜

【1】唵吉祥成就[1]. 至尊 菩薩들의 一族이, 至德 上帝들의 根源이 印度·西藏에서 이곳에 由來했음을 若干 모아서 말하고저 한다. 現世의 衆生에는 〔事理를〕알고 行함이 없기 때문에[2] 至尊 佛陀의 命으로 嘛哈

【1】 1. own suwasti siddam: own<Skt. om=Mo. om, Kh. om/um (the sacred syllable. N. Poppe; *The Mongolian Monuments in hP'ags-pa Script*, Wiesbaden 1957, p.128). suwasti siddam<Skt. suasti siddha, Q(III, p.1) 南無蘇瓦斯廸, 希特達陸, [B 109], fortune, perfected.

2. orčilang-un kümün amitan-du onoču üiledku ügei-yin tulada: 이 句節은 黃金史에서 가장 難解한 곳의 하나로서 一定한 翻譯이 없고 從來의 研究를 보면 各自의 解釋이 모두 다르다. 먼저 [KM 3]은 「世界の人類に欠くるところがないやうに」로 翻譯하여 onoču üiledkü ügei-yin tulad 를 「欠減이 없도록」(小林; アルタン・トプチ, p. 1)으로 보고 있는데 이 譯者가 왜 이러한 譯語를 擇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文法的으로도 無理한 解釋이다. 다음에 山本는 「世界の人類が適切に行ふ事なき爲に」로 ono-를 「適切히」로 보며 üiledkü는 이 낱말의 原뜻대로 보고 文法的으로도 KM보다 正確하나 ono-에 對한 譯語가 釋然하지 않다. Gomboev 또한 「正義感이 없는 이 世上의 存在物에 對해서」로 翻譯하고 있지만 onoču üiledkü에 對한 譯語인 「正義感이 없는」도 적당하지 않다기보다는 誤解이다. B(p. 109)의 該當譯文은 「Because in the men and living creature of this world there was lack of successful action」으로 onoču를 successful로 보고 있으나 이것 역시 理解하기 어려운 譯語로서, 여기 對한 아무런 說明이 없다. OA (p. 28)는 kümün을 主語, amitan-dur을 與格으로 보며, onoču에 關해서는 이것이 Ordos 方言의 ono'ts'i와 同一한 낱말로 보고 있다. [MO 513]에 의하면 ono'ts'i에 intelligence, signification(d'un mot): profit, gain과 같은 뜻이 있고 또한 東京外大의 蒙古人講師가 onoǰu üiledkü는 buyan üiledkü와 같은 뜻이 아닐까 보는 根據에서 「宇宙の人間, 動物界に善事施ざりし故」(p.172)로 翻譯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하고 決定的인 譯文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이것도 筆者에겐 釋然하지 않다. 從來의 이 모든 研究에서 가장 難點이 되어 있는 것이 ono-라는 낱말의 뜻이다. onoču를 KA만은 名詞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動詞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筆者는 이 語句에 對한 解釋의 두가지 可能性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中 하나를 本譯文에 提出했다. [KD 344]에 의하면 ono-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 atteindre (le but), 2. comprendre, concevoir, pénétrer. 그러므로

薩嘛諦[3]를 衆敬王이라 하여 讚揚했다. 印度의 最初의 王이 嘛哈薩嘛諦이다. 그 아들은 妙光帝[4], 그 아들은 善帝[5], 그 아들은 聖救帝[6], 그 아들은 頂生이라[7] 하는 四洲를 支配하는 金輪王[8]이다. 그 아들 妙[9]

筆者는 ono-를 「(事理를) 알고」로 보고 다음과 같이 翻譯한다. 그리고 kümün amitan을 分離하지 않고 이것을 「衆生」으로 본다. 그리하여 「現世의 衆生에는 〔事理를〕 알고 行함이 없기 때문에」의 譯文을 擇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可能性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句節은 maha samadi와 關係가 있기 때문에 maha samadi가 누구인가를 考察해볼 必要가 있다. maha samadi는 (Skt.) Mahāsaṁmata와 同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maha는 梵語로 「大」를 意味하기 때문에 「大三末多」 혹은 「大三摩多」의 漢字로 表示되는 것이다. mahāsammata는 「The first of the five kings of the vivarta Kalpa (成劫五王), one of the ancestor of the šākya clan」 [H&S, p. 83, 554]으로 Kalpa(劫)와 關係가 있기 때문에 이 句節은 佛敎思想的 表現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다. 然이나 ono-의 nomen futuri로 생각되는 onoqui에 佛敎的인 Kalpa(劫)의 뜻이 있다. 蒙·梵語佛敎用語辭典인 R.Vira; *Mongol-Sanskrit Dictionary*, New Delhi 1958, p.344에 의하면 「onuqui: 1. kalpa, 2. parīkṣā」의 對譯語가 보인다. 따라서 onoču üiledkü를 이러한 뜻으로 解釋한다면 「劫을 이룬다」 (onoču가 converbum 形임을 暫時 생각하지 않고)의 뜻으로 「成劫」과 關係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Skt. vivarta kalpa의 漢譯語인 「成劫」에 該當하는 蒙古語의 佛敎的 對譯語인 onoču üiledkü와 關係가 있어보이는 것이다. 即 Vivarta Kalpa (成劫)은 「one of the four Kalpas, consisting of twenty small Kalpas during which worlds and the beings on them are formed [H&S 232]이기 때문에 大三末多인 maha samadi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現世의 人間과 生物에는 成劫이 없기 때문에」 即 「[아직] 人間과 生物이 形成되지 않았기 때문에」의 뜻이 되는 것이다. 黃金史에서 成吉思汗의 系統을 印度·西藏에서부터 찾는데, maha samadi가 系統의 最初에 오르고 있는 點에서도 이런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句節에 對한 蒙古世系譜의 該當句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天竺國嘛哈薩嘛諦汗相傳上古之時萬物無專主嘛哈薩嘛諦汗降世導民化衆……」

3. Maha samadi [世] 嘛哈薩嘛諦. 註 [1] 2 參照. olan-a ergügdegsen qayan: [B 109] the Greatly Exalted King.
4. üǰesküleng gereltü qayan: [世] 烏遮思庫楞汗, [B 109] Splendid Light King.
5. buyan-tu qayan: [世] 布燕圖汗, [B 109] Virtuous King
6. tedkün asarayči qayan: [世] 特特昆阿薩拉客漆呼圖克圖汗, [B 109] Protector Saviour King
7. nami-yi köke: [世] 那賈庫克阿爾灘庫爾都圖汗, [B 110] Feed Me.
8. altan kürdü-tü qoyan: [B 110] King of the Golden Wheel.
9. üǰesküleng-tü: [世] 烏遮思庫楞圖蒲袞庫爾都圖汗, [B 110] Splendid King.

는 三洲를 支配하는 銀輪王[10], 그 아들 最妙[11]는 二洲를 支配하는 銅輪王[12], 그 아들 具妙[13]는 一洲를 支配하는 鐵輪王[14]이다. 그 아들은 嚴妙王[15]이다.

【2】 이들을 五轉輪王[1]이라고 讚揚했다. 嚴妙王의 아들은 捨帶[2], 그 아들은 捨持王[3], 그 아들은 捨固尼[4], 그 아들은 香草王[5], 그의 아들은 大香草王[6], 그 아들은 善見王[7]이다. [이들이] 嘛哈薩嘛諦王의 黃金氏族에서 由來한 王族[의]王이다[8]. 그 아들은 善生王[9], 그 王에서 차례 차례로 갈라진 王들의 最後가 獅子頰王[10]이며, 그 아들은 淨飯

---

10. mönggün kürdü qayan: [B 110] the Silver Wheel.
11. masi üǰesküleng: [世] 嘛詩烏遮思庫楞圖濟思庫爾都圖汗, [B 110] More Splendid King.
12. ǰes kürdü-tü qayan: [B 110] the Copper Wheel.
13. sayin üǰesküleng-tü: [世] 賽音烏遮思庫楞圖武睦爾庫爾都圖汗, [B 110] Good Splendid King.
14. temür kürdütü qayan: [B 110] the Iron Wheel.
15. tegüs üǰesküleng-tü qayan: [世] 武古思烏遮思庫楞圖汗, [B 110] Perfect Splendid King.

【2】 1. tabun čakrawarti qayan: [B 110] 參照.
2. talbiγči qayan: [世] 他爾必克齊汗, [B 110] Deliverer King.
3. talbin bariγči qayan: [世] 他爾賓巴里克齊汗, [B 110] Delivering Conserving King.
4. šekün qayan: [世] 壽尼汗, [B 110] King Seküni
5. küsi qayan: [世] 古式汗, [B 110] King Kusi. cf. küsi<Skt. kuca, Mo. küse=herbe sacrée, pae cynosuroides[KM 2587]
6. yeke kusi qayan: [世] 衣克古式汗, [B 110] King Great Küsi.
7. sayin üǰegči qayan: [世] 賽音烏遮克濟汗, [B 111] King Goot at Sceing.
8. maqa samadi qayan-u altan uruγeče inaγsi suluγsan gerge qayan buyu tegünü köbegün sayin töröl-tu qayan buyu. 從來의 飜譯은 全部 gerge를 可汗名으로 보았다. [OA 173] : 「マハサマデイ王の黃金族から此方へ分れしはゲルゲなり, 彼の子, サイヌ・トルルトウ王, ……」. gerge를 KM, OA와 같이 「甘蔗王」으로 본다면 다음 句節의 sayin töröl-tü qayan(善生王)과 矛盾된다. 甘蔗王과 善生王은 同一人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 111]에서와 같은 譯을 擇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 sayin töröl-tü qayan: [B 111] King Well Born.
10. arsalam oγoči-tu qayan: [世] 阿爾薩蘭烏古察圖汗, [B 111] King Lion Jaw; a rendering of the Skt. name siṃha-hanu. 筆者는 一般的 名稱에 따라서 「獅子頰王」을 擇했다.

王[11], 白飯王[12], 斛飯王[13], 甘露飯王[14]等이다. 淨飯王의 아들은 佛陀와 妙難陀[15]둘이다. 白飯王의 아들은 具壽勝[16]과 具妙[17]둘이다. 斛飯王의 아들은 具壽大名[18]과 無滅[19] 둘이다. 甘露飯王의 아들은 天授[20]와 慶喜[21]둘이다. 釋迦牟尼의

【3】 아들은 라 후리[1]이다. 라 후리가 僧侶가 되었기 때문에, 淨飯王의 血統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史籍等에서는 끊어지지 않았다고 說明한다. 佛陀가 涅盤에 들어가서 千餘年이 지난뒤, 嘛哈嘛諦薩王의 黃金族에서 東方 雪山의 기슭에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다. 印度의 마가다[2]의 큐사라[3]王의 아들, 살바[4]라는 이름의 王에게 다섯 아들이 있었다. 막내아들은 날 때부터 푸르고 하늘빛[5]의 머리털이 있고,

---

11. ariyun idege-tü qaüan: 〔世〕 阿里袞衣德格圖汗, [B 111] Pure Food King.
12. čayan idegeytü qayan: [世] 察漢衣德格圖汗, [B 111] White Food King.
13. tansu- idege-tü qayan: [世] 湯蘇克衣德格圖汗, [B 111] Agreeable Food King.
14. rasiyan idege-tü qayan: [世] 拉詩顏衣德格圖汗, [B 111] Rasâyana Food King.
15. burqan baysi: [世] 釋迦牟尼佛, [B 111] Lord Buddha. üjesküleng-tü enetei: [世] 烏遮思庫楞圖南帝, [B 111] Splendid Nandai.
16. nasuna tegülder ilayuyči: [世] 衣拉古克漆, [B 111] Endowed with Life, Victorious.
17. tegüs sayin: [世] 特古賚音, [B 111] Perfect Splendid.
18. nasun-a tegülder yeke nere-tü [世] 衣克那拉圖, [B 111] Endowed with Life, Great Name.
19. ülü türiddügči: [世] 烏魚多賚達克漆, [B 111] Not Degenerating.
20. liwadad: [世] 帝洼塔德.
21. ananda: [世] 阿難苔.

〔3〕 1. raquli: [世] 拉呼里.
2. magada: [世] 嘛嘎苔.
3. kusala: [世] 庫薩拉
4. sarba: [世] 沙爾巴
5. odaqan inu töröl-ki köke kiris üsutü: [KM 5]는 「青い眉毛をし」로 kiris를 飜譯하지 않고 있으며, [OA 34]는 「魔物の」의 같이 意譯하고 있다. 그러나 kiris는 [B 112]와 같이 turuoise의 뜻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cf. [世] 庫薩汗之孫沙爾巴汗之第二子也而綠髮手足皆遍…….

手足은 扁平하며 눈은 밑에서 위로 감았다. 『이[아이]는 지금까지 태어난 것과 같지 않다』고 서로 말하며 銅괘에 넣어서 **강가**河[6]에 버렸다. 西藏·**내팔** 두 [나라] 사이에서, 西藏의 한 老人이 河邊에서 이 괘를 얻어서 열어 보니, 한 아름다운 훌륭한 아이가 있었다. 열여섯살이 되어서 땅이 높고 좋은 [곳을] 찾어, 눈 [덮인] **샴부**山과 四方 낯선 땅을[7] 보고 『여기 살자』고 말하며 올 때 西藏사람을 만나서 [그는]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4】 [그는] 위를 가르쳤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神命을 받았다. 우리들의 西藏의 나라에는 王이 없다』고 말하며 목에 앉혀서 데려갔다. 西藏의 最初의 **큐쥬균 산다리**王[1]은 그이다. 그의 아들은 **엘킨 도로간큐뮨 산다리투**王[2], 그의 아들은 **키이 잘부 시바군 산다리**王[3], 그의 아들은 **아이틀하 알바이 산다리王**[4], 그의 아들은 **큐리큐륵 갈 보룰 산다리투**王[5], 그의 아들은 **큔 슈빈 모린 산다리투**王[6], 그의 아들은, **다라**

---

6. gangga mören: cf. [SH]
7. časutu šambu avula dörben ker yaǰari uvaǰu: 이 句節에서 가장 問題되는 곳은 ker일 것이다. [KM 5]는 單純히 「雪山の四方の地をみて」와 같이 ker을 飜譯하고 있지 않으며 또 [OA 34]는 ker를 kegere의 口語形인 kēr로 보고 이것을 草原地로 보았다. 그러나 U에 의하면 ker대신 qari가 보이며 [B 112]는 이것을 擇하고 있다. the snowy Sambu mountains and the four strange lands. 여기서는 B와 같이 qari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筆者는 여기 「낯선」의 譯語를 擇했다. 그리고 KM, OA는 avula뒤에 屬格語尾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筆者는 avula와 dörben qari yaǰar 사이에 接續詞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文法上의 無理가 없다. 이 點 B의 飜譯이 옳다. šambu: [世] 薩穆布.

[4] 1. küǰugün sandali qavan: [世] 庫諄三塔里圖汗, [B 112] Neck Seat King.
2. erkin doluvan kümün sandalitu qavan: [世] 額爾欽三塔里圖汗.
3. kii ǰarbu sibavun sandalitu qavan: [世] 恰札爾布西巴袞三塔里圖汗.
4. ayitulqa arbai sandalitu qavan: [世] 愛圖爾哈阿爾拜三塔里圖汗.
5. kürikulüg val bolur sandalitu qavan: [世] 庫里庫魯克曉爾波羅爾三塔里圖汗.
6. kün subin morin sandali-tu qavan: [世] 袞蘇賓默林三塔里圖汗.

이 슈빈 알탄 산다리투王[7], 그의 아들은, 兄은 보로츄[8], 다음은 시바구치[9], 망내는 뵐테 치노아[10]이다. 各自 서로 誹謗하여, 뵐테 치노아는 北方의 텡기스湖[11]를 넘어서 젠[12]이라는 곳에 와서, 남편 없는 고오아 마랄[13]이라는 계집아이를 얻고 젠에 居住하며 몽골氏族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바타이 차간[14], 그의 아들은 테뮤진[15], 그의 아들은 호리찰 멜겐[16], 그의 아들은 옥짐 부구룰[17], 그의 아들은 사리 갈차후[18],

【5】 그의 아들은 에케 니듄[1], 그의 아들은 삼 소치[2], 그의 아들은 사리 할자후[3], 그의 아들은 볼치기다이 멜겐[4], 그의 아들은 토라할친 마얀[5], 보룩친 고오아[6]라는 妻가 있었다. 몽골의 王들의 先祖인 最初는 成吉思可汗, 그의 아우는 외게데이可汗[7], 그의 아우은 큐륙可汗[8], 그의 아우는 뭉게可汗[9], 그의 아우는 후비라이可汗[10], 그의 아우는,

---

7. dalai sübin altan sandali-tu qaɣan: [世] 大賚蘇賓阿爾灘三塔里圖汗.
8. boroču: [世] 波羅楚.
9. šibaɣuči: [世] 師保漆.
10. börte činoa: [世] 博爾忒漆諾, [SH] 孛舌兒帖赤那
11. tenggis:]世] 滕機思, [SH] 騰汲思(水名).
12. ǰed: [世] 浙忒
13. ɣooa maral: [世] 爪馬拉爾, [SH] 中埃馬舌勤(白色鹿).
14. batai čaɣan: [世] 巴泰察漢, [SH] 巴塔赤中罕.
15. temüǰin: [世] 忒默拉克, cf. temečeg (OA 43).
16. qoričal mergen: [世] 呼里察爾墨爾根, [SH] 中豁舌里察舌兒篾舌兒于.
17. oɣǰim buɣurul: [世] 烏哈察穆布古魯爾, [SH] 阿兀站孛舌羅溫勒.
18. sali ɣalčagu: [世]薩里掃爾昭, [SH] 撒里中合察兀.

【5】 1. yeke nidün: [世] 衣克尼敦, [SH] 也客倆敦.
2. sam soči: [世] 薩穆楚漆, [SH] 滿鎖赤.
3. sali qalǰaqu: [世] 哈拉楚克, [SH] 中合舌兒出.
4. borčigidai mergen: [世] 博爾濟機代墨爾根, [SH] 中舌兒只吉歹篾舌兒干.
5. toraqalčin bayan: [世] 都拉噶爾津巴燕, [SH] 脫舌羅中割勒眞伯顏.
6. boruɣčin ɣooa: [SH] 孛舌羅黑臣中豁阿.
7. ögedei qaɣan: [世] 窩闊臺汗, [SH] 斡歌臺.
8. külüg qaɣan: [世] 庫玉克汗, [SH] 古餘克, 定宗.
9. möngge qaɣan: [世] 孟克汗, [SH] 蒙格, 憲宗.
10. qubilai qaɣan: [世] 蘇圖塞嗔汗, [SH] 中忽必來, 世祖.

다음에, **욀제이튜**可汗[11], 그의 아들은 **큐륙**可汗[12], 그의 아들은 **부얀투**可汗[13], 그의 아들은 **게겐**可汗[14], 그의 아들은 **이슌 테뮬**可汗[15], 그의 뒤는 **쟈야가투**可汗[16], 그의 뒤는 **후툭투**可汗[17], 그의 뒤는 **아지야말**可汗[18], 그의 뒤는 **우하가투**可汗[19], 그의 아들은 **비릭튜**可汗[20], 그의 아들은 **우수할**可汗[21], 그의 아들은 **죠릭투**可汗[22], 그의 아들은 **엘벡**可汗[23], 그의 뒤는 **오이랃의 바투라 칭상**[24]이 政事를 잡았다. 그의 뒤는 **토구간**可汗[25], 그의 뒤는 **우루이 테뮬**可汗[26], 그의 뒤는 **달박**可汗[27],

【6】 그의 뒤는 **오이라타이**可汗[1], 그의 뒤는 **아다이**可汗[2], 그의 뒤는 **몽골의** 政事를 **오이랃의 토강 타이시**[3]가 잡았다. 그의 뒤는 **다이숭**可汗, 또 **몽고의** 政事를 **오이랃의 에센 타이시**가 잡았다. 그의 뒤는 **마하 쿨키스**可汗[4], 그의 뒤는 **무우론**可汗[5], 그의 뒤는 **만두후리**可汗[6]

---

11. ölǰei-tü qayan: [世] 額爾濟圖帖木爾汗,
12. külüg qayan: [世] 庫魯克海山汗, 武宗.
13. buyan-tu qayan: [世] 卜燕圖汗, 仁宗.
14. gegen qayan: [世] 格根汗, 英宗.
15. yisün temür qayan: [世] 衣孫忒默爾汗, 定帝泰.
16. ǰayaya-tu qayan: 天順帝.
17. qutuy qayan: [世] 拉札巴克呼圖克圖汗, 明宗
18. aǰiyamal qayan: [世] 林親巴爾汗, 寧宗.
19. uqaya-tu qayan: [世] 拖歡忒默爾烏哈哈圖汗, 順宗.
20. bilig-tü qayan: [世] 蒙古必力克圖汗, 昭帝.
21. usqal qayan: [世] 烏薩哈爾汗
22. ǰoriy-tu qayan: [世] 恩克酌力克圖汗.
23. elbeg qayan: [世] 厄爾白克爾古勒蘇古漆汗.
24. batula činsang: [世] 巴圖拉丞相.
25. toyuyan qayan: [世] 袞忒睦爾汗
26. ului temür qayan: [世] 額爾濟忒睦爾汗.
27. dalbay qayan: [世] 他爾巴克汗.

【6】 1. oyiratai qayan: [世] [源流]에는 보이지 않는다.
2. adai qayan: [世] 阿臺汗
3. toyan tayisi: [世] 拖懽, [源流] 托歡太師.
4. dayisung: [世] 太松汗. esen tayisi: [世] 厄僧. [源流] 額森太師, maha kürkis qayan: [世] 墨爾古爾格思汗.
5. moulon qayan: [世] 摩倫汗.
6. manduquli qayan: [世] 滿都古爾汗.

그의 뒤는 **바얀 묑케 볼후 지농**[7], 그의 아들은 **바투 묑케 사인 다윤 다간**可汗[8], 그의 뒤는 **보디 아락**可汗[9], 그의 아들은 **달이숭 큐뎅**可汗[10], 그의 뒤는 **발수 보를 지농의** 아들 **게겐 알탄**可汗[11], 그의 뒤는 **튜멘 자삭투**可汗[12], 그의 뒤는 **부얀 세친**可汗[13], 그의 뒤는 **셍게 테룸 듀규렝**可汗[14], 그의 아들은 **슈밀 멜겐 타이지**[15], 그의 아들은 **다라이 라마의 후빌간 윤단 쟘주**[16], 그의 뒤는 **부얀 세친**可汗[17], 그의 아우는 **망구스 멜건 타이지**[18], 그의 아들은 **린단 후툭투**可汗[19], 그의 아들은 **엘케 홍홀 타이지**[20], 그의 아우는 **압나이 친 왕**[21], 그의

【7】 아들은 **부라니 칭 왕** 第四十二代이다[1]. **두와 소홀**과 **도부 멜겐**[2] 두 아들이 있었다. **두와 소홀**의 이마 가운데 단 하나의 눈이 있고 三日行程[3]의 먼 곳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일 보로**[4]라는 두[필]의

---

7. bayan möngke bolqu ǰinong: [世] 巴顏孟克博爾呼濟農.
8. batu möngke sayin dayun qaɣan: [世] 巴圖孟克大衍汗.
9. bodi alaɣ qaɣan: [世] 鉢帝阿拉克汗.
10. daryisung küdeng qaɣan: [世] 他賚孫闊通汗.
11. gegen altan qaɣan: cf. [世] 阿爾灘居歸化城自稱格根汗. barsu bolod ǰinong: [世] 巴爾思博羅忒.
12. tümen ǰasaɣ-tu qaɣan: [世] 圖門札薩克圖汗.
13. buyan sečin qaɣan: [世] 布衍塞臣汗.
14. sengge temür dürüng qaɣan: [源流] 圖古隆汗.
15. sümir mergen tayiǰi: [源流] 蘇密爾岱青.
16. qubilɣan yontan 'gyamso: [源流] 溫丹札木素.
17—21. 14—16와 같이 [世]에는 이들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源流]·[SS]에는 記錄이 있다.

【7】 1. [5]의 「몽골의 王들의 先祖인 最初는 成吉思可汗……」에서 여기까지는 本文中에 前後關係를 考慮하지 않고 挿入된 것이 明白하다. 그러므로 [5]의 『…「보룩친 고오아」라는 妻가 있었다』에서 다음 「두와 소홀과 동부 멜건 두 아들이 있었다.」로 連結되어야할 것이다.
2. duwa soqor: [世] 多婆和爾, [SH] 都蛙鎖豁豁兒. dobu mergen: [世] 多波墨爾根, [SH] 朶奔篾兒干
3. ɣurban negüri ɣaǰa-a: 사흘 野營하는 곳 即 사흘 걸려서 갈 곳인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뜻.
4. dayir, boro: [SH] 苔驛兒, 索舌騾. cf. F.W. Cleaves: *Review of E. Haenisch's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HJAS 12—3, 4. p.502.

말이 있었다. **두와 소홀은 도부 멜겐** 〔이라는〕 自己의 아우를 데리고 **불한 할둔** 「山」 위에 올라가서 앉어 있을 때 **두이랑**[5] 背後에서 **텡기릭** 〔江〕[6] 下流로 오는 一[群의] 遊牧民을 보고 아우 **도부 멜겐**에게 말했다. 『**텡 기릭**[河] 下流로 오는 遊牧民의 車의 前室[7] 안에 한 계집아이가 앉아 있다. 저 계집아이의 아름다움[8]은 여기서도 보인다. 너 가서 보라』고 **도부 멜겐**은 아우에게 말했다. 아우가 가서 보니 車의 前室안에 혼기에 달한 계집아이가 있었다. **도부 멜겐**은 그 계집아이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 계집아이는 『**튜먼**[9]의 **수룰타이 멜겐**[10]의 **발구친 고오아 아가**[11]에서 **아직 우순**[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룽 고오아**[12]라는 계집아이입니다.』라고 말했다. **도부 멜겐**은 그녀를 얻어서 **부후 하다기스·부후지 살지**[13]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14].

---

5. duyirang kiridü-eče: [KM 7], [B 14]는 duyirang kiridü 까지를 山名으로 보고 있으나, [SH]에서는 düireng gerüdeče 로 düireng 만을 山名으로 보고 gerü 는 「背後」로 보고 있으며 또 U(8)에는 düireng gerü-deče 로 되어 있기 때문에 筆는 U에 딸아 解釋했다. cf. 〔OA 59〕.
6. tenggilig: [SH] 統格黎克.
7. tergen-ü ölčigen: [SH] 帖兒格訥完勒只格送(車的前行). ölčigen 은 車前面에 마련된 앉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ladimircov 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Certain véchicules portaient le nom de *qara'utai (ou qara'utu) tärgän.* La langue mongole a conservé cette dernière dénomination qui désigne aujourd'ui un chariot (du type connu en Russie sous le nom de arba). Les chariot *qara'utai tärgän* s'appelaient aussi *öljigätäi tärgän.* C'est-à-dire: "chariot avec avant-train pour s'asseoir" Le Régime social des mongols, le féodalisme monade, traduction par M. Carsou, Paris 1948, p. 50 fn. 5. cf. 那珂通世譯註, 成吉思汗實錄, p.4. 完勒只格(明譯車前, 車の前室).
8. gerel: 原 뜻은 「빛」(光)이나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解釋했다.
9. tümed: [SH] 禿馬
10. surultai mergen: [SH] 剌兒臺篾兒干.
11. barvučin vooa ava: [SH] 巴兒中忽眞豁阿.
12. alung vooa: 〔SH〕 阿闌中豁阿.
13. buqu qatagis: [世] 布古哈他吉, [SH] 不中忽中合苔吉. buquǰi salǰi: [世] 布古齊薩爾, [SH] 不中合禿撒勒只.
14. 本句節은 [SH]의 三節後末부터 十節에 部分的으로 該當한다.

【8】 **부후지 살지는 살지굳**[1]氏族이 되었다. **부후 하다기스**는 **하다긷** 氏族이 되었다. **도부 멜겐**이 죽었다. 죽은 뒤 **아룽 고오아**는 男便 없이 살며 **벡텔·벨게테이·보돈칠**[2]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 **부후 하다기스**와 **부후지 살지** 둘이는 마음 속으로[3] 생각했다. 『여기는 우리들의 가까운[4] 사람이 없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것이냐』고 서로 말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 **아룽 고오아**가 알고 『너희들 두 아들이여! 나를 의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옳다』고 말하고 두 아들에게 하나씩 화살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씩 화살을 가운데를 부질렀다. 그 뒤에 다섯개씩 화살을 주었다. [그러나] 부질으지 못했다. **아룽 고오아**는 말했다. 『너희들 다섯[사람이 合친] 힘은 이것과 같다. 검은 밤에 黃白 童子가 들어올 때, 내 집에 빛이 들어와서 내 배를 쓰다듬으며 나갈 때, 黃色 이마에 흰점이 있는[5] 개가 되어서, 西쪽 門에서, 혀와 입을 핥으면서 나갔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天]命을 탄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兄弟 다섯이서 財產을 自己 몫을 서로 [나누어]가질 때,

---

【8】 1. salǰiɤud: [SH] 撒勒只兀惕

2. begter 과 belgetei 는 [SH]와 矛盾된다. begter 와 belgetei 는 temüǰin 의 異母弟이다. HS 17, 18 에 의하면 dobu mergen 이 처음에 낳은 두 아들은 belgünütei 와 bügünütei 이며 다음에 낳은 세 아들은 buqu-qadagi, buqatu salǰi, bodončar-mungqaq 이다. bodončar: [世] 博圓察爾, [SH] 孛端察兒 蒙中合黑.

3. dotora-ban: 마음 속으로.

4. nani ende oyira kümün ügei bayɤad: [B 115] Near us there was no man. [KM 8] 「われわれの處には男とて居ないのに」, [OA 175] [吾等の處に, 緣者はおらずあるを]等으로 [B]는 oyira 를 「附近」의 뜻으로, [KM]는 이 낱말이 飜譯되어 있지 않다. [OA]만이 「緣者」로 보고 있는데 本稿에서도 「가까운(親戚關係) 사람」으로 飜譯했다. [SH 18]의 該當句節에 ene eke bidan-u aqa de'ü üye qaya kü'ü ügei ere ügei'üi bö'etele ede ɤurban kö'üd töre'ülbi (어머니에게는 우리들의 가까운 親戚도 없고 男子도 없는데 이 세 아이들을 낳다. cf. F.W. Cleaves, *op. cit.*, p.503)가 있고 이 aqa de'ü üye qaya 를 黃金史에서는 oyira kümün 으로 表現한 것으로 생각된다.

5. qalǰin 은 Mo. qalčan 으로 보았다. cf. [B 115].

【9】 **보돈칠**에게는 등 가운데 鞍傷이 있는 짧은 꼬리[1]의 말을 주었다. **보돈칠**은 말했다. 『죽든지 살든지 내 運命에 맡기자』고 말하고 **오논**河를 올라갔다. 늑대가 아름다운 숫(牝)사슴을 바위 동굴에 몰아넣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겨누어 [활을] 쏘아 죽이고 그 고기를 糧食 삼아 살았다. **오논**河의 水源에 草庵[3]이라는 집을 세워 살고 있을 때, 灰色 매[2]가 꿩을 잡는 것을 보고 말꼬리로 덫을 만들어 [매를] 잡아 그것을 길들여[4] [매를] 놓아주고 (매사냥을 하며) 살았다. **오논**河 下流에서 [매를] 놓아 살고 있을때 一群의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馬乳酒를 마시며 살았다. 그뒤에 **빅텔**兄이 『**오논**江 上流로 우리들의 한 아우가 갔다.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찾어 왔다. 그 사람에게 가서 『여기 한[필]의 흰 바탕에 붉은 점이 있는 二歲馬를 가진 아이를 보았는가?』고 물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 한[필]의 흰 바탕에 붉은 점이 있는 말을 데리고, 한[마리]의 灰色 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날마다 馬乳酒를 마시며 살고 있다. 당신은 여기 저기 찾지말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

【10】 그러자 正午가 되었을 때 구름도 없는데 비가 조금 조금 내렸다. 그 사람은 『아이가 지금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돈칠**이 왔다. 그 매가 잡은 [새의] 털은, 바람이 일어나자, **오논**江下에 새의 털의 飄雪처럼 飛散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兄弟 둘이서 돌아 갔다. 돌

【9】 1. qotong: [B 116]는 qotong을 qotovor과 關聯 있는 낱말로 보고 with a concave back로 飜譯했다. 그러나 [SH 24]의 中豁多黎(qotoli)와의 比較에서 [OA 69]는 「短尾」로 飜譯했다. qotovor나 qotoli나 qotong과 同一한 낱말로 보기에는 形態的인 差異가 너무 크다. 筆者는 여기 暫定的으로 「짧은 꼬리」로 飜譯해둔다.

2. boro qarčivai: cf. [方言集釋, 飛禽類] 秋鷹 보라매, 蒙 부루 할챠개.

3. ebesün ömbüle: [B 116] Grassy Hut. ömbüle의 뜻이 不明이나 여기서는 暫定的으로 草庵이라 해두었다. cf. [SH 28] ebesün nenbüle ger(ebesün 草, nembüle=庵, ger=房子).

4. oruqulǰu: cf. [B 116] subduing it.

아 갈 때 兄인 **빅텔에게 보돈칠은** 말했다. 『사람에겐 兄이 있고 옷에는 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襲擊합시다』고 말했다. 兄은 『집에 가서 의논하자』고 말했다. 兄에게 또 말했다. [그러나] 兄은 同意하지 않았다. 兄弟 다섯이서 그 사람들을 쳐서 잡았다. 거기서 **보돈칠은** 姙娠하고 있는 女子를 잡아 얻었다. **보돈칠의** 아들은 **하비치 큐륙**(1), 그의 아들은 **비킬 바가툴**(2), 그의 아들은 **마하 퇴텐**(3), 그의 아들은 **하치 큐륙**(4), 그의 아들은 **바이상홀 독신**(5), 그의 아들은 **툼바나이 세친**(6), 그의 아들은 **하불可汗**(7), 그의 아들은 **발탐 바가툴**(8), 그의 아들은 **이슈게이 바가툴**(9)이다.

【11】 [이슈게이가] **다리타이와 오초혼**(1) 두 아우를 데리고 사냥갔을 때, 『흰 토끼가 있는가』하고 狹攻했다. [그러고 보니] 한 婦人이 오줌을 누었다. 거기서 車의 간길 [을 따라] 가서 『그 女子에게서 좋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車의 간길을 따라 가니 **다이추굳**(2)의 男子 **치레듀**(3)**가 외게렌 에케**(4)를 **올호눋**(5)에서 얻어서 돌아오는 것을

【10】 1. qabiči külüg: [世] 哈必漆巴圖魯, [SH] 合必赤.
2. bigir bayatur: [世] 八奇爾巴圖魯.
3. maqa töten: [世] 嘛哈圖丹, [SH] 箋年土敦.
4. qači külüg: [世] 哈齊庫魯克, [SH] 中合赤曲魯克.
5. bayisangqor doysin: [世] 拜双合爾多克深, [SH] 伯升中箋兒多克申.
6. tumbanai sečin: [世] 敦巴海塞臣, [SH] 屯必乃薛禪.
7. qabur qayan: [世] 哈卜爾汗, [SH] 中合不勒中合罕.
8. bartam bayatur: [世] 巴爾達睦巴圖魯, [SH] 杷兒壇把阿禿兒.
9. yisügei bayatur: [世] 伊蘇格巴圖魯, [SH] 也速該把阿禿兒.

【11】 1. daritai očoqon: 黃金史에서는 [G], [P 2]에서 이 두 낱말 사이에 點이 있다. 그리고 [SS 60]에 의하면 bartam bayatur에는 네 아들이 있고 그 이름은 yisügei bayatur, negün tayisi, menggetü sečen, daritai očugen 이다. 또한 [SH 50]에서도 bartam bayatur의 네 아들은 menggetü kiyan, nekün tayidzu, yesügei bayatur, daritai odčigin이기 때문에 黃金史에서도 daritai očoqon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人名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點 黃金史의 記錄은 正確하지 않다. 그러나 本譯文에서는 黃金史의 句節에 忠實하게 그대로 飜譯해 두었다. cf. [B 117], [OA 86].
2. dayičuyud: [SH 34] 箋兒乞敦.
3. čiledü: [SH 34] 也客赤列都.
4. ögelen eke: [SH 35] 訶額侖兀眞.
5. olqonud: [SH 34] 斡勒中忽訥兀惕.

宋詩의 政治性

——王安石의 詩를 中心으로——

李 炳 漢 (서울大學校文理大)

中國文人들의 傳記를 읽음에 際하여 우리는 매양 그들의 生涯를 通한 甚한 流浪의 記錄을 본다. 勿論 그 原因은 生活根據地의 移動, 仕宦期間의 旨然스러운 轉任등 正當한 要因이 없지 않지만 大部分은 政治人으로서의 運命的인 要素가 많음을 發見한다. 反面 그들의 作品의 素材가 보다 豐富하고, 內面的인 苦悶과 葛藤으로 因하여 昇華되는 作品의 世界도 그만큼 眞摯해졌을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古代中國의 政治家가 곧 文人이오 學者요 思想家였으며, 文人, 學者 및 思想家가 바로 政治家였다는 循環的事實에서 오는 現象이라 볼 수 있다.

從來 中國에 있어서의 文人들의 第一義的인 意味에서의 政治에의 參與條件으로는 于先 科擧制度를 들 수 있는 바, 隋唐代에 이르러서는 文辭詩賦의 詞藻를 通한 文人政治의 기틀이 잡히었고, 宋代에는 詩賦가 登科의 絕對的인 要件으로 固定되었다. 그리하여 及其也는 宋代 一部學者 또는 爲政者들 自身이 이러한 方法의 人材登用制度가 實際政府의 需要와 符合되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이의 改革을 主張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實相 宋代政治의 弊端은 考試制度 (科擧)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對外的으로는 遼. 金 및 西夏와의 屈辱的인 外交關係를 비롯하여 開國以來 强力하게 施行해온 中央集權制度로 말미암아 中央官吏들에 依한 一般 백성들의 收奪등 苟且하게 維持해오는 平和와는 달리 內外로 無力과 腐敗의 現象이 頗多하게 露呈되었다.

이러한 現實에 處하여 王安石(1021～1085) 은 일찌기 스물 두살에 進士에 登第한 以後 地方官吏로 轉轉하면서 時政의 弊端을 痛感하고 이의 改革을 試圖하고 스물일 곱살에는 지금의 浙江 寧波인 鄞縣의 令으로 四年 동안 在任하면서 一部農民經濟政策을 實行에 옮겨 成果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하여 王安石은 仁宗이 崩去하고 神宗의 即位와 함께 中央政府의 政策擔當者로 올라서면서부터는 過去의 經驗과 그 自身의 急進的인 政見을 土臺로 靑苗均輸, 保甲, 免役, 市場, 保馬, 方田等 所謂 新法을 斷行하여 國運이 中興하는듯도 싶었으나 保守的인 政敵들의 强力한 反撥에 부딪쳐 끝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挫折하고 만다.

王安石의 이러한 革新的인 政治理論과 아울러 宰相까지 累任한 그의 華麗한 政治家的 經歷으로 因하여 오늘날 一般人들은 王安石을 얼핏 「新法」이라는 一種의

돈[7]과 아이여! 당신들은 어디로 가오?』라고 물음에, **이슈게이**는 말했다. 한 아들 **테뮤진**을 **올호눋**에 [가서] 아내를 찾으러 감을[8] 말함에 **데이 세친**은 말하기를 『어제 밤에 흰(白) 매가 있어 내 손바닥에 잡은 것을 꿈꾸었소이다. 이 꿈은 **키욷部 불지긴**氏族인 당신들의 前兆이오. 내 집에 가오. **뵐테라는** 아홉살 된 딸이 있소이다. 드리지오! 옛부터 우리 곳의 風習으로 아름다운 계집아이를 車에

【13】 앉혀서 검은 駱駝가 끌고 모든 君主의 皇后로 삼았읍니다. 아름다운 계집아이를 灰色 이마에 별 있는 駱駝가 끌고 높은 자리 위에 앉히고 뭇 사람의 [君主의] 皇后로 삼았소이다』. **이슈게이 바가둘은** 아들을[1], **데이 세친**에게 한 쌍의 말을 주고, **테뮤진**을 두고 가려할 때 『내 아들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보살펴주시오』라고 말하고, 돌아 오는 길에 **타탈**人을 만나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避할 수 있을까』하고 [말에서] 내렸다. [그러나 避하지 못하고 그들은] 먹을 것에 毒을 섞어서 주었다. [**이슈게이는**] 집에 당황해서 돌아왔다. 『무서운 **타탈**人에게 들렸는데 맛 있는 음식에 毒을 섞어서 주

7. quda: 婚姻關係에 의해서 親戚關係가 맺어진 兩家의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國語의 「사돈」에 該當한다. 그러므로 [OA 95, 178]의 「親族」는 合當한 譯語가 될 수 있다. cf. Vladimirčov; *op. cit.*, p.200. Il est possible que les *ayil* nomadisant et compant généralement ensemble, à une petite distance les uns des autres, aient été appelés ḫota chez les mongols, et aient constitué une entité administrative.

8. odui: -i는 nomen verbale의 接尾辭. cf. N. Poppe: *Geserica*, Asia Major 3 (1926), p.170. Schliesslich finden wir im Geserkhan auch die alte Form *ayisu* "er nähert sich" 12 mal u. 15 mal odui "er geht", beide auf -i. Diese Suffix-i finden wir in *bui*, und es war ursprünglich ein Suffix des Nom. verbale (eines Partizipuims), da *bui* auch jetzt noch deklinert kann……Somit haben wir in *bui, bolui, ayisui* und *odui* eine alte Partzipiumform. cf.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 93 f.

【13】 1. yisügei baγatur *ača köbegün*-yien… : 原文에는 temüǰin 을 외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나 史實과 다르므로 譯文에서는 γaγča를 飜譯하지 않고 다만 「아들」이라고 해두었다.

었다.』고 말하여 自己의 命[이 짧은 것]을 알고 **멩게릭**에게 가라고 말했다. 『**홍기랄의 데이 세친**에게 아들 **테뮤진**을 두고 왔다. 어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곧 가서 데리고 오기 前에 **이슈게이**는 죽었다. 총명하게 태어난 夫人 어머니[2].

【14】 현명하게 태어난 아들을 들파(野生葱)로 항상 양육하여 나라의 君主로 삼았다. 마음씨 곱게 태어난 夫人 어머니, 天命으로 태어난 아들을 작은 물고기로 양육하여 天命의 王位에 앉혔다[3]. **테뮤진·하살** 둘이서 **외게렌 에케**에게 말씀 드리기를 『언제나 그물로 잡은 고기를 **빅텔**이 뺏어 갑니다. 오늘도 **하살이** 활쏘아 잡은 종달새를 뺏어 갔읍니다. **빅텔 벨게테이**를 죽입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외게렌 에케**는 『아! 내 아들이여! 옛날 **타이치굳의 욀베이 고오아**의 다섯 아들 같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에게는 그림자보다 다른 친구가 없다. 꼬리보다 다른 채찍[4]이 없다』[5]고 말했다. 이말에 **테뮤진·하살**은 門을 열고

---

2. oyu-tue förögsen *učin eke:* [B 119]에서는 učin eke를 固有名詞인 人名처럼 飜譯하고 있으나, učin은 「夫人」(cf. [HW 161])이다. 따라서 筆者는 učin과 eke를 이 경우 同格으로 보았다.
3. oyu-tu törögsen unčin eke,
   uqaya-tu törögsen kobegün-iyen,
   uryuysan manggir-iyar ürgülǰi teǰigeǰü,
   ulus-un eǰen bolyabai.
   ǰamg-tu törögsen učin eke,
   ǰiyaya-tu törögsen köbegün-iyen,
   ǰirama ǰiyasun-iyar teǰegeǰü,
   ǰayaya-tu qayan-i oron-dur oroyulbai.
   이 句節을 詩文으로 整理하면 위와 같고 여기서 頭韻을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이 二聯은 類似한 內容을 類似하게 反覆 表現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脚韻도 같다. ǰirama ǰiyasun: ǰirama, cf [HW] 90 ǰiramut (pl. von ǰiram?), 小魚兒 kleine Fishen 75. ǰiyasun은 「魚」[MJ 1509]. 本稿에서는 單純히 「물고기」로 飜譯해두었다. 勿論 「작은 물고기 물고기」 — 이렇게 飜譯해도 無妨하다.
4. čučaya: cf. [HW 27] cicu'a: 鞭子 Peitsche 76.
5. 이러한 句節은 [SH]에서도 볼 수 있으나 蒙古의 一般的인 表現인듯 생각된다. [SH] ta se'üder-eče busu nökör ügei, se'ün-ece čiču'a ügei bui. [KM 1363]

나갔다. 나가서 여덜[필]의 암갈(暗褐)色 騙馬를 벡텔이 지키고 있을 때, 테뮤진은 앞에서 하살은 뒤에서 벡텔을 包圍하며 『죽이자!』고 말하고 [가까히] 감에 벡텔은 말했다. 『너희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동생 벨게테이는 죽이지 말어라! 너희들에게 꼭

【15】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벡텔을 죽이고 테뮤진·하살 둘이 외게렌 에게 옆에 왔을 때 외게렌 에게는 말했다. 『아희들아! 너의들은 절벽에 가까히 달려드는 매[1]처럼, 제 胎를 깨무는 검은 개처럼, 비 오는 날 달려드는 푸른 이리처럼, 제 뼈를[2] 깨무는 암낙타처럼, 저물어서 달려드는 개[3]처럼, 잡을 수 없는 호랑이처럼,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거냐?』고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타이추굳[部族]이 襲擊해왔다. 『너희들과 어미 다섯은 [모두] 소용이 없다. 테무진을 여기 내놓라!』고 타이추굳이 말함에 테뮤진은 그 말을 듣고, 오논[江邊]의 숲에[4] 살며시 들어가서 숨었다. 타이추굳은 [그것을] 알고 들어간 入口를 지키고 있었다. 숲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올 때, 배띠를 졸라매고 가슴띠를

---

següder-eče öbere nökör ügei, segün-eče öbere čičuɤ ügei: Il n'y a d'autre compagnon que l'ombre; il n'y a pas d'autre houppe que la queue, c.à.d., pauvre comme un rat d'église; privé de secours, pauvre.

【15】 1. qasuɤ salbar: salbar은 Poppe: *Mukaddimat al-Adab*(161)에 의하면 「猛禽」으로 나타나나 一般辭典에서는 볼 수 없다. qasuɤ은 不明. 本稿에서는 「사나운 매」로 暫定的으로 意譯해 두었다. cf. salbar[爪]爪[鳥ノ], [M] 944]

2. čoyirung-iyan čimüge qaǰiqu: čoyirung에 對해서는 相異한 見解가 있으나([B 121], [OA 128], [KM 17]), 筆者가 보기에는 合當하지 않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暫定的인 飜譯만을 提示했다.

3. baruɤ: [OA 117]는 單純히 「バロツク」로, [KM 17]는 「番犬」으로 飜譯하고 있으나 誤譯이다. 이 baruɤ은 터어키語의 baraq와 同一語로 생각된다. baraq: langhaariger Hund, der nach dem Volksglauben aus einem der beiden Eier eines alten Adlers entsteht 1, 315. 13 [AM II, 120, 7] (C. Brockelmann: *Mittertürkischer Wortschatz*, p. 31). cf [B 121]. 本稿에서는 「사나운 개」로 意譯해두었다.

4. tüng: [SH]의 「斡難訥(河名的) 屯(林)」의 「屯」과 同一한 낱말이다. cf. [HW 154] tun=Wald, [KM 18]의 「洞穴」은 誤譯.

맺는데도 안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래서] 君主는 생각했다. 『배띠는 좋다고, 해두자! 가슴띠와 안장은 왜 미끌어 떨어지는 것일가? 내 하늘이 일깨워준 것이 아닐까?』고 [다시] 돌아 가서 사흘 지냈다.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올 때, 길

【16】 위에 堅固한 흰 돌로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나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막으신 것일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사흘을 보냈다.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아흐레를 지냈다. 『그렇게 해서 죽든지 살든지 나의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자』고 말하며 오니 **타이추굳이** 入口를 지키고 있었다. **테뮤진**을 잡아서 집에 데리고 가서 쇠고랑 수匣을 채워 看視했다. 지키고 있을 때 **톨한 시라**의 아들 **치라군·침바이**[1] 두 아들은 불상하게 여겼다. **타이치굳은** 여름 滿月의 15日에 큰 잔치를 하며 **테뮤진**을 弱한 사람으로 [하여금] 치키게 해 두었다. **테뮤진은**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더려버렸기에[2], 그 사람은 일어나서 소리쳐 불렀다. 소리를 듣고 **태이치굳은** 떠들어대며 왔다. **테뮤진이** 물에 들어가서 누었다. 물에 들어가서 누어 있는 것을 **톨한 시라**가 보았다. 『조금 전 아이로구나! 누어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숲을 찾는다. 賢明한 사람은 머리털을 다듬어라, 좋은 사람은 수염을 쓰다듬어라』고 말했다. **타이치굳은** 흩어져 돌아갔다. 검은 밤이 된

【17】 뒤에 말젖을 뒤젓는 소리로 救助者인 **톨한 시라**의 집에 들어갔다. **톨한 시라**는 말했다. 『오! **테뮤진**아! 어머니에게 가거라! 여기는 왜 왔느냐?』고 말했다. **톨한 시라**의 아들 **치라군·침바이** 두 [사람]은 말했다. 『들어온 종달새를 숲은 숨겨주는 것입니다. 골라서 [여기] 온 아이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라곤[1]

【16】 1. čilayun, čimbai: [SH] 赤老温, 沉白.
2. čokiǰu orkiysan-dur: 여기서 orki-를 本動詞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筆者는 助動詞로 飜譯해두었다.
【17】 1. siǰir: cf. [MO 391], [B 123, fn. 3].

무엇이 있겠읍니까?』고 말하며 도끼로 쇠고랑을 부쉬고 **테뮤진**을 놓아 주었다. 양(羊)털을 싫은 車에 **하다한**이라는 딸을 **테뮤진** [과 함께] 둘이를 숨겨 놓았다. **타이추굳**은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쇠고랑 手匣을 찬 아이가 어디 갔으냐?고 말하며 집 집을 찾았다. 救助者인 **톨한 시라**의 집에 이르렀다. **톨한 시라**의 집을 뒤지고 양털을 싫은 車를 뒤지려할 때, **톨한 시라**의 兄이 不快하게 말했다. 『이런 여름의 더위에 산 사람을 양털 싫은 車에 숨겨두는 사람이 있겠는가?』고 말하니 모두 허터졌다. 그 뒤에 **톨한 시라**가 말했다. 「오! **테뮤진**! 나의 재(灰)를 보낼번 했다. 너는!』하고 말했다[2]. 그리하여 不姙의

【18】 흰 말을 **테뮤진**에게 내려서 (下馬하여) 줄 때 한 쪽 발걸이(鐙)를 풀어서 주었다. 두 어미 젖을 먹는 새끼 羊[1]을 죽여서 고기를 만들어 糧食을 주고 『네 어머니에게 急히 가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테뮤진**은 急히 가서 **외게렌**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願대로 살고 있는데 **타이**

---

2. 蒙古語의 特殊한 慣用的 表現인듯 하나 그뜻을 明確하게 알 수 없다. 現在까지의 모든 研究는 原文을 그대로 直譯하고 있을따름이다.

【18】 1. tel eki-dü qurya: [KM 22]는 「二歲の羔」로 또 [OA 138, 811]는 「仔羊」로 飜譯하고 있으나 모두 誤解이다. [B 124]는 元朝秘史(§ 87)의 該當句節인 tel quriqan(喫二母乳的羔兒)를 考慮하여 a lamb which had sucked two ewes로 飜譯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 cannot trace the word *tel* with the meaning 'double', but from the gloss in the Secret History this seems to be its general meaning. [KM 1716]에서는 tel quraγan =brébis de deux, ou de trois ans이 보이나 여기서는 tel과 del (=la crinière)를 混同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이것과 類似한 뜻은 Kalmück 方言에서도 보인다: [RK 390] tel=ein tierjunges, das ausser mutter noch eine amme hat. 그러나 이 낱말의 原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Ordos 方言으로 생각된다: [MO 655] *t'el* dans *t'el xɯrga*=agneau qui tette deux mères; *t'èl e'ᵏx't'i xɯrga* id. 이 後者의 語句는 黃金史의 그것과 同一하다. 따라서 [P1]의 tel eki-dü qurya는 tel eke-tü qurqa(n)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cf. G.P2). 또 이와 類似한 表現으로 tere xojor Dzagalig jisɯ GɯnDɯ t'el GoxᵏXɯrlDzi aráxan onDorowa (Mostaert: *Textes Oraux Ordos*, p.229)가 보이는데 이경우의 tel Goxᵏxūl- 는 laisser sucer à un jeune animal le lait de plusieurs mère를 意味한다. (*ibid.* 742, MO 655). 따라서 筆者는 本稿에서 「두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 羊」으로 본 것이다.

치굳이 뒤자죽을 따라와서 여덜[필]의 밤색털 말을 뺏어 갔다. 君主는 그 뒤에서 **벨게테가 탈바간**(2) 사냥할 때 타는 벗겨진 꼬리의 黃馬을 타고 쫓었다. 밟힌 풀을 따라서 가서 쫓어 가니 **라후 바얀**의 아들 **규륙 보홀치**(3)가 가죽 통(皮桶)과 가죽 주머니(皮袋)(4)를 가지고 인 기척 없는 곳에서 말젖을 짜고 있을 때, 君主는 만났다. **보홀치**는 묻기를, 『**키윤部의 볼지긴氏族**인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가?』고 말했다. 君主는 말씀했다. 『내 여덜[필]의 淡黃色 말(5)을 **타이추굳이** 갖어간 길을 따라서 왔다, 나는!』하고 말했다. **라후 바얀**의 아들 **규륙 보홀지**는 빠른 淡黃 얼룩 말에 君主를 태우고 많은 馬群에 가서 自己는 등이 검은 흰 말을 타고 君主와 함께 찾아서 **타이추둗**에게

【19】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여덜[필]의 淡黃色 말을 많은 사람이 둘러쌓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君主는 **보홀지**에게 말했다. 『**보홀지**! 너는 잡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마!』라고 말했다. **보홀지**는 말했다.

---

2. tarbavačilavsan dargi qongvur-i unuǰu nekcbe: tarbavan은 [B 124]와 같이 mormot의 一種으로 생각되나, 우리 말로 正確한 譯語가 없기에 原名을 그대로 寫音해 두었다, dari qonqur을 [OA 181]는 [SS 68]에서와 같이 固有名詞인 馬名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KM 23]는 「ダルキといふ栗毛の馬」로 飜譯하고 있다. [SH 90]에는 dargi oqodur qongvur(dargi ogodur=禿馬, qongvur=黃馬)가 보인다. [HW 32]에서는 dargi oḥodur 禿馬 (mit) Stummenschwanz, 또한 同書(122)에 oḥodur(=oḥatur)禿馬 Stummenschwanz도 보인다. 여기 關해서 [B 124]는 禿馬가 [HW]에서처럼 stump tailed가 아니라 bald tailed임을 注意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SH]에 따라서 「벗겨진 꼬리의 黃馬」로 飜譯해 두었다.
3. külüg boqorči: [SH] 李翰兒出.
4. namava kükür: [SH 90] nambuqa sa'uluqa (皮桶, 皮斗). [HW 113] namaḥa 大皮桶 grosser Ledereimer; 皮袋 Ledersack, [132] sa'uluḥa 皮斗, 皮桶.
4. sirva: 말의 색갈을 表示하는 이 낱말은 앞에도 數次 나왔으나 正確히는 淡黃(엷은 노란)색을 意味한다. cf.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pp.29—30.

【19】 1. kürüm geküle: 同一한 表現이 다른 곳에도 보인다. [OA 160]는 kürüküle를 더 强調해서 表現한 것으로 보고 있다.

『福된 좋은 날엔 따르고, 당신이 싸우는 날에 避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고 말했다. 君主는 **보훌지**의 말을 옳다고 말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여덜[필]의 淡黃色 말을 몰고 나왔다. 여덜[필]의 淡黃色 말을 데리고 오니, **라후 바얀이** 길에 있었다. [두 사람은] 맛데고는 웃고 뒤돌아서서는 울며 『내 아들아! 너는 이 일을 버리지 달라!』고 말하며 두 어미 젖을 먹는 양 새끼를 죽여서 糧食을 주어 보냈다. 君主는 여덜[필]의 淡黃色 말을 **외게렌 에케**(어머니)에게 데리고 왔다. 온 뒤에 **외게렌 에케·하살**과 그의 아우들은 걱정하고[2] 있다가 보고 좋아했다. 거기 돌아왔을 때, **테뮤진·벨게테이** 두[사람]은 **데이 치친**의 딸 **뵐테 외킨**을 아홉살 때 보고 와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케뤼렌** 下流로 찾어갔다. 칙칠 [과] **초훌후** 누[山] 가운데 **테이 세첸**의 **홍기랃**이 거기 있었다.

【20】 여기서 **테뮤진**을 보고 좋아했다. **데이 세첸**은 말하기를 『**타이추굳** 너의 兄弟는 서로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며 失望해서 생각했다. 겨우 [지금] 보았다. 나는!』이라고 말하고 **뵐테 켈진**이라는 그의 딸을 맺어주고 떠났다. 떠나 데리고 갈 때 **데이 세첸**은 **케뤼렌江**의 遊牧地 **졸 누굳**[1]에서 그의 몸과 살은 熱病을 앓고 돌아갔다. **뵐테겔친**의 어머니[는] **죄테이**라는 이름이었다. 自己 딸을 보내려고 **셍귤江**에 이르렀을 때, 보내고 왔다. **죄테이** 어머니가 돌아온 뒤에 **벨게테이**을 보내서 **보훌지**를 『친구가 되자』고 부르러 보냈다. **보훌지**는 **벨게테이**를 오

2. erügsen: erü-<[SH 93] herü-. [HW 75] heru:-: 愁 traurig, betrübt sein. cf. Mostaert: *Erdeni yin Tobči*(Scripta Mongolica II), I(Introduction), p.68.

【20】 1. ǰol nuʏud: [cf. B 127]. [SH 94]의 該當句節은 「客魯舌洌訥(河名的) 兀舌剌黑啜(河名的) 弩苔察(隅自)」, 이것을 Pelliot 는 kälürän-ü uraq-ǰöl (?) nu-dača(Histoire seciète des mongols, p.21), Haenisch 는 keluren o urah-jol nudaca(p.16)로 轉寫하고 있다. 또 [OA 167]는 keluren-u uraʏ-čol nud-ača 로도 寫音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固有名詞로 보아두었다.

게하고, 父母에 말 없이 등이 굽은 黃馬[2]를 타고 灰色 外套를 접어(들고, 싣고) **벨게테이**와함께 왔다. 그와 가까히 하며 親하게 된 緣由는 그러하다. 다음에 **셍귤**江에서 移動하여 **케류렌**江源 **불게**江邊에 駐營하고 **죄테이** 어머니가 준 검은 貂의 上衣를 **에슈게이**主에게 婚姻선물로 주었다[3]. [테뮤진은 그것을] 아버지의 盟友인 **케리임**의 옹河汗에게 보내고 [그] 上衣를 입히고 집에 돌아 왔다. 온 뒤에 可汗의 큰 자리(大位)에 앉었다(即位했다).

【21】 [이것이] 하늘에서 天命으로 태어난 **테뮤진**인 **징기스**可汗이다. 佛陀가 涅般에 들어가시고 三千二百五十餘年이 지난 뒤, 十二人의 나쁜 汗들이 태어나서 모든 衆生을 괴롭히고 있음에 그들을 制壓하기 위해서, 佛陀에게 豫言이 주어져서, **징기스**可汗이 태어났다고 한다. 五色 四夷[1]의 人民을 비롯하여 閻浮堤[2]의 三百六十一族과 七百二十의 말(言語)을 가진 人民의 貢稅를 받어, 손은 땅에 발은 흙에 安心시키고 轉輪

---

2. cf.[蒙語類解 Ⅱ—30b] 黃馬 공골 말 : 홍골 모리.
3. sitüjü bölüge: [KM 21]는 單純히 [與へたものとして」로 또 [OA 158]는 「賴つて」, 同書[182]에서는 「(イスゲイ主に)賴りあいし」로 飜譯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誤譯이다. 黃金史의 sit-이 [SH 86]의 šidkül(失惕坤勒)과 同一한 語根임은 明白하다. šidkül의 意味로 [SH]의 對譯漢語는 「一見公姑的禮」이다. cf. [HW 142] Besuchsgeschenk für die Schwiegermutter.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p.31—32. Vladimircov의 說明이 參考될 것이다. La polygamie était un fait coutumier, mais la première femme était toujours considérée comme étant l'aînée. Au cours de la première présentation à sa belle mère, la promise accomplissait certains rites déterminés et lui présentait des cadeaux *sitkül*, de la part de sa propre mére (*Le Régime Social des Mongols*, p.58). 그러므로 [B 127]가 (The black marten ……) had been given as a *wedding gift* to Lord Yisügei,로 飜譯한 것은 옳다.

【21】 1. 五色: 靑은 蒙古族, 紅은 漢族, 黃은 回敎族, 黑은 西藏族, 白은 高麗의 五民族을 意味한다. 四夷는 海邊의 夷, 東岸의 夷, 가슴에 눈이 있는 夷, 狗頭深目의 夷를 말한다. cf. [KM 26].
2. čambudiib: [KD 2103] S. djambudvipa. c'est un des quatre continents en forme d'îles dont les Buddhistes croient la terre composée: s'est pour eux le continent indien, Hindoustan.

王과 같이 讚揚되었다. 大王 **징기스**可汗은 壬巳[3]年에 태어났다. 四十五歲 때 丙寅年에 **오논**江源에 九脚의 白纛을 세우고 可汗의 大位에 올랐다. **하살**君主가 叛하여 도망침에 나라의 君主는 勅을 내리시고 **슈베게테이 바가둘**로 하여금

【22】 쫓게할 때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말하기를;

『騙馬의 머리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마이 별과 冠의 頂子가 된,

발(簾)처럼 감겨진,

돌처럼 뭉쳐진,

나의 힘센 날 따르는 者들이여!

대(竹)처럼 늘어선,

城처럼 둘러싼,

나의 臣下 軍士들이여!

너희들 들거라![2]

---

3. qara movai jil는 qara morin jil로 訂正하는 것이 옳다. 壬巳年은 있을 수 없다. 黃金史에서는 「징기스」可汗의 出生年을 1162年으로 보고 있다.

【22】「징기스」可汗이 말한 이 첫行부터 9行까지는 黃金史에서 가장 飜譯하기 어렵고 問題가 많은 句節이다. 먼저 從來 이 句節이 어떻게 飜譯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KM 27]는 「騙馬の頭が突進して來る如くである. 黃帽の頂子となつたチク(?)の樣である. 疊んだ石のやうに, 結んだ刀の力, 儂が友の影よ! 竹の樣に並んだ城の如く, 周圍のわが官人, 軍人よ聽け!」, [OA 163]는 「騙馬の頭の出て來るが如し, と. 兜の額の黃金鐵となれる凝點の如く團結せる, 冠の金剛石となりし石の如く凝固せる, 力强き我が友人よ, 竹の如くたち並べる, 城壁の如く圍繞せる, 吾が臣下なる兵士等よ, 汝等よ, 聞け」. [B 129] 「you, my companions and followers who are my strength: you who are the forehead piece and the button on the hat; rolled up like a pigtail heaped together like stone, as when the heads of (your) gelding are coming forward; 「ranged like reeds, girt in like fortresses, you my tributary armies, listen!」 이들 飜譯을 보면 이 句節이 얼마나 飜譯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먼저 [KM]의 譯文은 상당히 恣意的이며 [OA,B]도 正確性을 期할려고 무척 努力한 흔적이 보이지만 [OA]는 오히려 지나친 像想에 기울어진 것 같고 [B]는 要領不得이다.

이 句節을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먼저 押韻關係를 正確하게 理解할 것과 또한 čig의 正確한 意味를 把握할 것이 要求된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는 위에 引用한 三者가 다 같이 이 點을 正確하게 理解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OA‖19]만은 本句節의 押韻關係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이것이 本句節의 解釋에 先行되는 條件임을 지적한 것은 實로 卓見이다. [OA]에 의하면 먼저 몇가지 異本을 對照하고 句讀點을 考慮하여 押韻關係를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 本文의 解釋에 不可缺한 것이기에 다음에 [OA]의 整理方法을 그대로 引用하기로 한다.

manglai-yin sara / malaya-yin wacir } boluysan { cig metü ebgenigsen / cilayun metü janggiduysan } auy-a kücün nöküd següder minü } sonusuytun ta
{ xulusun metü jergelegsen / xota metü küriyelegsen } albatan ciregüd minü }

그러나 筆者는 이 句節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는 것이 오히려 便利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1. ayta-yin terigün yarǰu ireküi-dür adali.
2. manglai-yin sara malaya-yin wčir boluysan
3. čig metü ebkenigsen
4. čilayun metü ǰanggiduysan } 1st stanza
5. auqa küčün nöküd següder minu
6. qulusun metü ǰergelegsen
7. qota metü küriyelegsen } 2nd stanza
8. alba tan čireg-üd minu
9. sonusuytun ta.

위와 같이 3—5, 6—8이 頭韻과 脚韻을 整然히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5, 6—8은 두 stanza로 보아야할 것이다.

(頭韻)	(脚韻)
x	a
x	a
y	b

그러므로 2의 boluysan을 [OA]는 3의 čig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čig의 正確한 意味를 잘못 본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2行의 全文이 正確히 解釋되고 그 正確한 뜻을 把握하지 못하는限 boluysan이 어느 낱말에 걸리는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本稿에서 從來 正確하게 解釋되지 못했던 čig은 [B]와 같이 pigtail도, [OA]와 같이 「凝點」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華夷譯語(10b)의 「赤黑」(籠)과 同一한 낱말로서 [KD 2174]에서 natte로 佛譯된 것이다. 房門에 걸어 놓는 「발」을 意味하는 것이다. 즉 「발이 감겨진」 것과 같이 軍士들이 첩첩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비유하여 表現한 것이다. mo.čig은 華夷譯語의 그것과 같이 中期더어키語의 čyy과 同一語源이다. 頂子란 淸朝時代 官吏의 位階

日常 거를 때는 송아지처럼[2] 거러라!

재빨리 攻擊하는 일에서는 매(兎鶻)처럼 襲擊해 가라! 너이들!

이[쪽] 저[쪽]과 서로 칼싸움 할 때는 오리 잡는 매처럼 襲擊해 가라! 너이들!

生活할 때는 족제비 두살 송아지처럼 보내라! 너희들!

를 表示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帽珠이다. 이것은 一種의 權力의 象徵인 것이다. 그리고 manglai-yin sara를 [OA]처럼 「兜の類の黃金鐵」같이 飜譯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句節이 그의 ayta-yin terigün과 關聯이 있을 것이기에 「騙馬의 머리」에 對한 「이마의 星點」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1, 2를 筆者는 本文에서와 같이 飜譯한다. 3에서 現在까지 여기서는 飜譯하는데 그다지 큰 問題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表現하고 있는 말인가를 除去하고. 2에서는 manglai-yin sara와 malaya-yin wčir가 다 같이 boluysan에 걸리는 即 sara와 malaya사이에 接續詞가 省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anglai-yin sara는 소나 말의 이마에 있는 별(星) 같은 點을 意味하며, malaya-yin wčir에서 malaya는 帽子, wčir은 中國語로 「頂子」로 飜譯되는 것이다. 暫定的으로 nomen perfecti로서의 boluysan은 5의 nöküd següder과 8의 alba-tan čireg-üd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두었는데 이것은 暫定的인 試譯임을 밝혀둔다. 本句節은 qasar가 王位에 오른 「징기스」汗에 叛亂을 일으키며 sübegete bayatur로 하여금 이들을 추격시키기 위해서 많은 軍士를 召集하여 놓고 軍士들을 向해서 하는 말이다. 먼저 1—2를 直譯하면 다음과 같다. 「騙馬의 머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čyy=ein aus Artemisiablättern geflochener Vorhang (C. Brockelmann: *Mittetürkischer Wortschatz*, p.54). Mostaert神父는 筆者에의 私信(1963, 2, 10付)에서 筆者의 [čig에 關한 解釋과 韻關係의 整理가 옳음을 是認하고 ebkeni-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Le mot ebkeni- ne signifie pas 'entoures'. C'est un dérivé de ebke- 'mettre en rouleau'. 그리고 原文 2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l me semble qu'il n'est pas impossible que les mots ayta-yin terigün yarǰu ireküi-dür présent un texte tronqué ou corrompu, sourtout les mots yarǰu ireküi-dür. 이러한 可能性을 생각할 때, 여러 研究에서와 같이 特히 1—2의 解釋에서 지나치게 想像에 기우러지는 것은 危險하다. 오히려 直譯만을 提示해두고 더 具體的인 研究는 將來의 研究로 미루어두는 것이 賢明할 것 같이 생각된다. 또한 從來의 研究例에서와 같이 1—2를 無理하게 飜譯하려할 때 그 다음 句節까지 曲解하게 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2. idam bariqu: [B]에 의하면 Mostaert는 idam을 「守護神」, bariqu는 biravu로도 보는 것 같으나, idam biravu는 複合語로서 「송아지」를 意味한다. [MJ 上 231], 「犢牛」小牛.

威壓하고[3] 襲擊하는 일에는 매처럼 덤벼들어라! 너희들!

交友하고 서로 웃고 지낼 때는 느린 검은 두살 송아지처럼 사귀며 지내라! 너희들!

外敵과 활쏠 때는 매처럼 擊襲해 가라! 너희들!

굶주린 호랑이처럼, 굶주린 수리(鵰鷹)처럼 가라! 너희들!

밝은 날에는 숫늑대처럼 슬며시 가라! 너희들!

검은 밤에는 검은 까마귀처럼 참고 가라! 너희들!

질투하는 女子처럼

【23】 참고 가라』고 말씀했다. **슈베게테이 바가둘이** 上奏하기를 『할 수 있든지 없는지 쫓아봅시다.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가봅시다. 나의 君主에게 福을 맡기자!고 말하며 쫓아 가서 **하살君主에게 슈베게테이 바가둘은** 告하기를 『同胞親戚에게서 떨어지면 열 사람의 밥이 될 것입니다. 親戚들에게서 떨어지면 孤兒의 밥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싸우면 孤立된 사람의 밥이 됩니다[1]. 움직이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으나

---

3. sorobkilaqui: [G]의 sürübkilekü를 考慮하여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OA 24]의 譯語를 擇했다. 그리고 5의 nöküd segrüde를 [B]는 companions and followers로 飜譯하고 있으나 이 두 낱말은 複合語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f. [RK 341] nökr̥ sdür=Begleiter, suite der (ürstlichen). 또한 이 낱말을 從來에는 「友人」으로 飜譯하는 것이 普通인것 같으나, 이 경우 「징기스」可汗이 自己 軍士에 對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RK]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뜻이 적합할 것 같기에 筆者는 [RK]의 譯語를 擇해서 「날 따르는 者」로 飜譯했다. 그리고 [B]는 8의 alba-tan을 tributary로 飜譯하고 있으나 그것은 中國語로는 「當差人」으로 飜譯되는 것이다. (蒙古語大辭典 上卷 p. 70). 그러므로 筆者는 이것을 「臣下」로 飜譯해 두었다.

【23】 1. olan ulus ebderebesü oyurčay kümün-ü idesü bolum-ǰa: [KM 28] 「多くの國が破れたらば退く人の食物となりますぞ」. [OA 163] 「衆多の人より離れなば, 孤人の餌とならん」. [B 130] If the many people perish, one will become food for isolated men. 以上 몇가지 飜譯을 보면 相互 若干의 差異가 있다. 問題는 ebderebesü와 oyurčay에 있을 것이다. ebdere-는 [KD 186]에 의하면 se briser, se détruire: pétrir: se gâter, oyurčay는 同書 [367]에 의하면 jeté, rejeté, laissé, abandonné: qui n'appartient à personne: séparé, isolé. 그러므로 이 句節에 가장 忠實한 飜譯은 [B]라 하겠다. 萬

骨肉은 얻을 수 없읍니다. 人民은 얻을 수 있어도 親族으로 태어난 것은 얻을 수 없읍니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하살은 옳다고 했다.

타이추군의 칠겔 뵈케[2]는 나쁜 생각으로[3] 自己 집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융단을 깔고, 『一族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他人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이 나쁘게 지낼 수 있읍니가?』고 말하며 自己집에 招待할 때, 『毒 있는 敵이 적다고, 毒 있는 뱀이 가늘다고 생각하지 말라! 믿지 말고 조심해라』고 聖主가 말씀했다.

【24】『활솜씨 좋은 하살, 너는 화살통을 지켜라! 힘센 벨게테이 너는 파수병이 되어라!』고, 『하추후 너는 말을 지키라!』고, 『혈기 있는 외치긴[1] 너는 내 옆에 앉어라!』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 없다』고 말씀했다. 君主는 집에 들어가서 융단 가운데 앉으려고할 때, 외치긴은 君主의 몸을 끌어서 요(융당)가장자리에 앉혔다. [이 때] 한 女人이 절뚝거리며 와서 왼쪽 발걸이(鐙)를 잘라 가지고 가는 것을 벨게테이가 보고 그 女子의 왼쪽 발을 急히 때려버렸다[2]. 그래서 뷔리 뵈케는 벨게테이의 어깨를 밑으로 잘랐다. 이렇게 險惡해졌을 때 하살은 화살을

— [OA]와 같이 飜譯한다면 ovurčav는 [SH]에서 볼 수 있는 「도적」의 뜻으로 飜譯될 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 [HW 125] o'orcah (=o'urcah 129); 劫賊 Bandit, Strolch, Vagabund(Heimatloser). 그러나 ebdere-는 「싸우다, 말다툼하다」의 뜻에서 「不和하다」의 意味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f. [MO 227] eBDere=Se quereller, avoir une rixe. 그러므로 ovurčav kümün은, 서로 싸우고 있으면 團結히 있지 않는 孤立된 한 사람의 밥이 된다는 뜻에서, 「團結하고 있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는 意味가 될 것이다.

2. [SH]에도 「赤勃格兒拏闊」라는 人名이 보이나 本句節의 čilger böke와는 다른 사람이다.

3. mavu sedkiye gejü: 文脈으로 보아 意譯한다.

【24】 öčigin: [SH] 斡赤堅.

2. tere eme-yin ǰegün köl-: quvu tašiǰu orkiba: [B 130] he struck and broke her leg and knocked her down. [KM 29] その女の左の脚を折つて棄てた. [OA 164] 彼の女の左足をば, いたくたゝきやれり. 여기서 orki-는 deskriptive verba로 보아야할 것이다. cf. Poppe: *Khalkha mongolische Grammatik*, p. 89. [B, KM]는 誤譯이다. quvu에 關해서는 [RK 195] 參照: $\chi^u\gamma^u$=mit einmal, plötzlich weg.

해아리고 있었다. 馬乳酒桶을 치고, **홀친**의 **톨타구이**의 不姙의 흰 말에 君主를 왼 손으로 태웠다. [그리하여] **톡타구이**에게 **달간**의 特權을 附與했다[3]. 여기서 [그는] **달간**의 姓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서 발걸이(鐙)가 짤렸다.』고 **하추후**를 叱責했다고 한다. 그래서 **벨게테이**를 잡아서 車에 묶어 놓았다. 밤에 자고난 뒤에 車를 업고서 돌아 왔다.

【25】 聖主는 『**타이추굳**과의 싸움에서 **벨게테이**는 나를 尊敬하지 않는 듯 왼 손으로 잡아서 말에 태웠다』고 꾸짖었다. 여기서 **하실**과 **벨게테이** 둘이는 『이것은 君主의 까닭 없는 叱責의 말씀이시다. **하살**의 활솜씨와 **벨게테이**의 센 힘으로 五色四夷의 大國을 우리 權力[下]에 넣어다.』고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君主가 아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주자!』고 말하며, 보잘 것 없고 더러운 老人이 되어서 한 긴[1] 黃色 활을 들고 『팔자!』고 물으며 갔다. 그래서 **하살**과 **벨게테이**둘이는 『보지도 못한 老人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 老人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이외다. 활을 팔며 살고 있소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들 둘이는 『이 활을 사라는 것이냐?』고 없이녀겼다. 그래서 그 老人이 말하기를 『나쁘지만 활을 당겨[보고]서 알아보시오!』고 말했다. 그리하여 **벨게테이**는 들고서 당길 수 없었다. 그 老人은 당겨

---

3. darqala: [KD 1678] accorder un privilège à qn. darqan 에關해서는 P. Poucha: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1956), p.153 參考. Der Titel ist chinesisch, darqan aus chin (Karlgren 957) ta<d'ât, (298) kan<kan, <kân bzw. (447) kuan <kuân, und schon alttürkisch tarχan, tarqan, plu. tarqat, hoher Adelsrang, gr. *ταρχάν* beleqt, vgl. Bailey a.a.o. s. ff., auch im Khotanischen als ttarkani, ttarkạni, ttarkana vorkommend. darqan은 原來 「自在」의 뜻이었으나 <[HW 32] darhan=自在, frei, unabhängig, pl. darḥa(n)t>, 「免稅된 特殊한 階層의 사람」을 表示하게 된다. 參考로 터어키語에서는 「指揮官」의 意味가 있다: tarxan=Befehlshaber (Brockelmann, *op. cit.*, p.198).

【25】 1. urtavčin: [KD 468] arc long, dont la face inférièure est fait de corne de buffle, tout d'une pièce d'un bout à l'autre: arc-en-ciel.

서 **하살**에게 주었다. **하살**도 당길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 老人은 푸른, 이마에 별점이 있는[2]

【26】 노새를 탄 白髮의 사람이 되어서 긴 黃色 활에 黃金「도고나」[1]를 걸어서 바위를 뚫어[2] 쏘았다. 『聖主의 활솜씨 좋은 **하살**[과] 힘 센 **벨게테이**라는 동생은 [너희들] 둘이냐? 큰 말할 때는 크게 [입을] 물어본다고 한다』[3]고 叱責하고 갔다. 그래서 그 아우는 무서워서 『君主의 變身일게다』고 서로 말했다. 그 뒤 그들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엥귄의 오란칭퀴이는** 설흔하나의 部族民을 잡고 『落日 뒤에는 남(他人)이 된다!』고 말하며 갔다. 君主와 **하살**둘이는 쫓아서 잡았다. 그때 君主의 **사인 사무친**(馬名)을 **하살**이 타고 그의 아들 **톡탕가 바가톨**을 이끌고 先頭에서서 **사인 사무친**이 피로 빨갛게 되기까지 뛰어 다니며 鎭壓하여 잡어 왔다. [그래서] **하살**은 **볼바라**라는 女子를 賞[으로] 얻었다.

그 뒤 **오란 친귀이는 후비란 치친**可汗에게 유리塔을 선사했을 때 **알알탄**이라는 自己 딸을 주었다. **알탄 홀홀다이**라는 이름의 딸을 **소롱굳**[4]의 **아린**可汗에게 주었다.

---

2. qalǰin: [KD 802] une place; (étoile sur le front d'un cheval); chauve.

【26】 1. toγona: [KM 31] 硝子, [B, OA]는 이 낱말을 飜譯하고 있지 않다. toγna의 正確한 뜻은 不明이기에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原語를 그대로 提示했다. 詳細히는 [B 131, fn. 26.1]參照.

2. qaγa: 다음과 같은 뜻도 있으나 여기서는 擇하지 않았다: [MD 323] χaga =en morceaux.

3. yeke üge ügületele yeke ümkü: [B 131] Big words of boasting mean a big mouthful, [KM 31] 何といふ大言壯語するのだ, [OA 165] 大言をはく間にいたく鍛練すべし. 各者의 飜譯이 다르다. [OA]는 同書 55에서는「大きな言を云ふ間に大いに口を含め」와 같이 直譯하고 있는데 이것을「いたく鍛練すべし」로 意譯한 것은 理解하기 困難하다. 이 句節의 뜻은「큰 소리할 때는 입을 한번 크게 물어서 큰소리를 하지 않게 하라」는 뜻이 分明하기 때문에 [B]의 飜譯도 어색하다. [OA]의 直譯이 오히려 原뜻에 가깝다.

4. solongγud: [OA 59, 165]는「朝鮮」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이 果然 朝鮮을 意味하는지는 疑心이 간다. [MD 582] solongos=nom de clan, on distingue

【27】聖主에게 뷔리에드의 오루 시귀시가 大바이할에서 매를 잡아서 君主에게 선사했다. [그래서] 오루 시귀시에게 뷔리에드를 統治시켰다. 그 後 君主는 새를 올후江에서 오라이江에 날리고 갈 때 (「매 사냥을 하며 간다」는 뜻), 女眞의 황진可汗이 보고 도망쳐서 오지 않았다. 君主는 돌아가서 화를 내고 出兵했다. 오라이江에는 얕은 여울이 없었다. 그래서 하살의 조카 난도, 시라, 하지후, 칭, 타이지는 萬[필]의 말의 재갈을 잡아매어 외치며 城을 包圍하고 『萬마리의 제비, 千마리의 고양이를 貢物로 바쳐라!』고 말하며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제비에게 麻布[1]를 붙여 달았다. 고양이에게는 솜을 매달어서 불을 붙였다. 제비는 제집에 들어가고 고양이는 집 위에 올라갔다. 고양이[와] 제비들은 불로 태워서 [城을] 빼앗었다. 『怪常하다! 고양이냐!』고 황진可汗이 말했다. 聖主는 황진可汗의 딸 자라가이를 얻었다. [그러나] 그 皇后는 途中에서 죽었다 한다.

聖主는 太陽이 오르는 쪽 소롱가國에 出征하여 갈 때 유네겐江이

【28】氾濫하여 君主의 몸과 大軍은 여기서 阻止되었다. [그래서] 使臣을 보냈다. 『聖主는 租稅를 가져오라고 오셨다』고 말하니 소롱군의 부가 차간可汗은 自己의 후란이라는 딸을 은밀히 獻上하고 虎皮 집과 더불어 부가·소롱가 두部族의 하님(下典)을 배(船)로 [실어] 데리고 왔다[1]. 그래서 聖主는 소롱군의 부가 차간可汗을 비롯하여 高官 大臣들

---

les Boro solonɣos et tš'agāā solonɣos [HS. Suppl. Ⅱ. f. 28r. (Haenisch 274) solonɣas Coréens].

【27】kiyebüg: [OA 72]는 [KM 33]와 같이 kiyebüg을 kiyaban와 같은 낱말로 보고 있으나 [B 132]는 여기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이 낱말의 뜻을 不明으로 보면서도 暫定的으로 linen이라는 譯語를 擇하고 있다. 筆者도 이 낱말의 뜻을 把握할 수 없기에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麻布」로 飜譯해두었다.

【28】baras ger-*tei* buɣa solongɣa qoyar otoɣ inǰe-*tei* ongɣoča-bar abču irebei: [B 133]…and brought her by boat with the two peoples Buɣa and Solongɣa, with tiger(skin) houses. [KM 35] 虎や家やソロンガの二村の從遵者を漆へて, 舟

모두들에게 江 넘어로 소리쳐 말씀했다. 『너희들이 내게 租稅를 바친다면 여기 저기를 統治하라!』[2]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 뒤 聖主와 후란皇后 둘이서 베개를 같이 하려할 때(같이 잔다는 뜻), 『둘에서 베개를 같이 한다면 規則이 없어질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愛撫하심이 어떻십니까?』고 모든 大臣들이 上奏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따르지 않고 베개를 같이했다. 그 때 소롱가國에서 三年을 머므르고 있었다. 알하순 홀치를 『나라를 다스려라!』고 주저앉혔다. 집에서는 『聖主께서는 왜 머므르십니까?』고 알가순 홀치를 使臣으로 보내기에, 알가순 홀치는 붉은[3] 말을

【29】 타고 석달갈 곳을 三晝夜에 다달아서 『君主께선 안녕하시옵니까?』고 물었다. 『안녕하시다』고 官人들이 말했다. 그 官人은 『皇后[王]子 모든 人民이 다 平安하냐?』고 물었다. 홀치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皇后나 [王]子는 平安하시다. 당신의 모든 人民의 氣質을 몰랐읍니다. 당신 妻子들은 안녕하십니다. 당신의 至大한 人民의 氣質을 몰랐

で連れくると, [OA 166] 虎皮の家と共に, ボガ・ソロンガ二部族のインヂェ(引出物)をのせる舟にて連れ來れり. [KM]는 正確한 뜻이 表現되어 있지 않다. 이 句節은 「虎皮 집과……하님을 배로 데리고 왔다」의 뜻이다. 그리고 inǰe는 위의 三者가 다 正確한 뜻을 把握하고 있지 않다. [HW 82] inje=從嫁 Brautgeteil (vom chines 媵 yin Brautjungfer?). 蒙古의 諸王은 普通 그 딸을 結婚시킬 때 一定數의 albatu를 딸려보냈는데 이 albatu는 下典으로 이것을 inǰe라 한다. Les seigneurs mongols donnaient habituellement en dot à leur fills une certaine quantité de leur albatu (inǰi ~inza). Vladimircov: *Le régime sociale*. p.211 (fn.2).

2. činaγsi inaγsi qaraγtun: [B 133] I will protecr you in all cases. (qara-)γtun의 -γtun은 二人稱複數의 命令形을 形成하는 接尾辭이다: the imperative of the second person of the plural, or the so-called benedictive, expresses a polite entreaty addressed to one person or to several persons.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p.89. 그러므로 [B 133]와 같이 I will protecr you in all cases로 飜譯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3. qurbalun ǰegerde: [KM 36]는 ǰegerde를 固有名詞(馬名)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B 133]의 the *red* horse Qurban 혹은 [OA 81]「ボルバロンなる人蔘色の馬]와 같이 飜譯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LM 215] zeerd =ryžij (o masti lošadi)

읍니다. 찢어진 입에 樹皮와 魚皮를 얻어 먹었읍니다. 당신의 모든 人民의 氣質을 몰랐읍니다. 마른 입에 물과 눈(雪)을 얻어 마셨읍니다. 당신의 **몽골**人의 氣質을 몰랐읍니다.』라고 上奏하니 君主는 理解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라!』고 말했다. **알가순 홀치**가 告하기를 『沙羅樹에 발톱이 사나운 새[1]가 알(卵)을 낳다고 합니다. 그 沙羅樹에 의지해서 살때, 사나운 매[2]인 나쁜 새에게 그 집이 破壞되고 알과 새끼가 먹혔다고 합니다. 갈대 있는 湖水에 白鳥와 거위가 알을 낳다고 합니다. 그 갈대에 의지해서 살 때, 사나운 매[3]인 나쁜새에게 집이 破壞되고 알과 새끼가 잡혀먹혔다고 합니다.

【30】 나의 聖主여? 明察하시라!』고 告하니, 君主는 『**홀치**의 말을 알았는가? 너이들!』하고 말했다. 官人들은 『모르겠읍니다』고 말했다. 君主는 스스로 아시고 말씀했다. 『沙羅樹라함은 나의 모든 친구들이다. 사나운 매(salbar)라함은 나의 몸이다(내 自身이다). 사나운 매(sar)라함은 **소롱굳**의 人民이다. 알과 새끼라함은 나의 皇后 皇子이다. 집이라함은 平和로운 나의 大國이다. 갈대 있는 湖水라함은 나의 모든 大人民이다. 白鳥와 거위라함은 내 自身이다. 사나운 매(qulatu)라함은 **소롱굳**의 人民이다. 알과 새끼라함은 나의 皇后와 皇子이다. 집이라함은 나의 大國이다』라고 말씀하시고 黃金의 고삐를 당겼다[1]. 聖主는 말씀했다.

【29】 1. salbar sibayun: cf. [15] 脚注 1 參照. salbar 은 새의 발톱을 意味하나, salbar sibayum 이 實際로 어떤 種類의 새를 意味하는지는 알 수 없다.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발톱이 사나운 새」로 飜譯해 놓았다.

2. sar: [KD 1328]에 의하면 sar 도 食肉의 사나운 새를 意味하나 여기서는 暫定的으로 「사나운 매」로 飜譯해두었다.

3. qulatu: 이것도 어떤 種類의 매를 意味하나 本稿에서는 便宜上 暫定的으로 「사나운 매」로 飜譯해두었다.

【30】 altan ǰiluya-ban ǰalabai: 「黃金의 고삐를 고쳐잡았다」로도 飜譯된다. 이 말의 뜻은 「가르키다, 諭示하다」. cf. [OA 95].

2. ilede: [OA 100-101] 參照.

【31】 1. baras ger-un öngge-dur bolǰu: 이 句節의 bol- 을 [B 134]는 I have been *in* (? *indulged in*) the beanty of tiger (skin) houses 로 또 [OA 167]

『나의 **뵐테켈진**皇后는 어릴 적에 만났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렵다. 집에 들어가면 그[녀]의 집은 좁아질 것이다. 집에 있는 사람과 相談하지 않았다. 外人의 面前에서[2] 화내 성내며 지낸다면 부끄러워 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나의 九傑들中 한[사람]이 가서 相議하고 오는 것이 緊要하다고

【31】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라일**의 **고오아 무후리**는 君主의 命으로 가서 到着하여 **뵐테켈친**皇后에게 拜하고 앉었다. 그래서 皇后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의 君主는 안녕하시느냐? 너는 왜 왔느냐?』고 물었다. 『"君主의 命을 알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定한 規律은 없고, 심한 사랑의 慾情만이 있었읍니다. 諫臣의 말에 따르지 않으셨읍니다. 虎皮집의 色[情]에 빠지셨읍니다[1]. 聖主는 **후란**皇后와 同寢하셨읍니다』[2] [고 對答했다]. **뵐테케진**皇后는 말씀했다. 『나의 君主의 힘이니라! 모든 **몽골**의 希望이니라! 나의 聖主의 힘이니라! 그들 모든 希望이니라! 江邊에는 白鳥와 거위가 많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이 부르틀때까지[3] 활을 쏘는 것을 나의 君主는 아시리라.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 女子가 많다고한다. 찾아서 얻는 것을(나의 君主는) 스스로 아시리라. 갈대가 있는 湖水에는 白鳥와 거위가 많다고 한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

는 「虎及の家の色香に迷い」等으로 直譯·意譯하고 있다. 筆者는 前後文脈을 考慮하여 「…에 빠졌다」로 意譯해두었다. öngge는 單純한 beauty나 또는 「色香」이 아니라 「色情」으로 飜譯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普通 뜻인 「顏色」으로 取한다면 앞뒤關係를 連結하기가 어렵다. 「虎皮집의 용모 (또는 안색)」이 되기 때문이다.

2. 무후리가 뵐테켈진皇后에게 告하는 말인 이 句節에서 [B 134]는 「君主의 命을 알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以下의 文의 主語를 君主 自身이 自己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The rule which *I* established is no more. The Power of *my* strong desire exists.…… *I*, the Holy Lord, have slept with the Queen Qulan,와 같이 一人稱代名詞로 飜譯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후리가 君主가 이러 저러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후리가 說明하고 있는 君主를 主語로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čintele [OA 112-3], [B 134, fn. 31, 1]參照.

지 활 쏘는 것을 나의 君主는 아시리라.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 女子가 많다고한다. 나의 君主는 찾아서 얻는 것을 스스로 아시리라. 활 잘 쏘는 사람은[4]

【32】 江邊의 오리 두[마리]를 한거번에 쏜다고한다. 男子가 願한다면 姉妹 두[사람]을 함께 얻는다고 한다. 길드리지 않은[1] 말 위에 안장을 얹으라고 한다. 女子 위에 女子를 얹으라고한다. 남음은 나쁘고 不足은 좋은가? 衣服을 겹쳐 [입으면] 춥지 않다고 한다. 세겹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씀했다. 聖主가 호란皇后를 데리고 올 때, 알하순 홀치는 馬乳酒에 醉해서 黃金 胡琴을 들고 다른 곳에 留宿했다고, 聖主는 보홀치, 무후리 두 [사람을] 『오라!』고 하여 『알하순 홀치를 소리 없이 불러서 꾸짖지 말고 죽여라!』고 일러보냈다. 보홀치와 무후리 둘[이]은 가서 『알하순 홀치! "너는 술에 醉해서 黃金 胡琴을 가지고 다른 곳에 留宿했다"고, 말 없이 불어 꾸짖지 말고 죽이라고, 보내신 것이다.』고 말함에, 알하순 홀치는 말했다. 『죽는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한다. 죽을 사람은 말한다고 한다』고 말했기에 그 두 官人은

---

4. erkei-tü mergen: [B 135] a hunter with a thumb, [OA 167] 拇指のある善射者, [KM 39] 力のある善射者. Mergen은 元朝秘史에서 人名에 쓰이며 「善射者」라는 傍譯이 있다: Namen mit -märgän "geschicht, *Bogenschütze*", wohl seir ältesten Zeiten als Titel gebraucht, wenn man nach den Namen des Stammbaumes urteilen darf. P. Poucha: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p.55. erkei-tü를 [B, OA]는 直譯하고 있는데, 이것은 黃金史 p.40(2行)에 있는 *köl-tü*(morin)와 類似한 表現이 아닌가 생각된다([40] 註參照). 이렇게 본다면 單純한 「엄지손가락이 있는 (善射者)」가 아니라 「힘 있는」 혹은 「힘 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칼묵方言에서는 erkei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erkē=(1) daumen, (2) sporn(des hahns), (3) *männlich* [RK 125]. 그러나 本稿에서는 다만 「활 잘 쏘는 사람」으로 飜譯해두었다.

【32】 1. amlig: [p_2]의 emlig를 取한다. [KD 217] emlig=non dressé(un jeune boeuf, un cheval: sauvage, effréné [OA 107, KM 40]가 「駒を生んでない」로 飜譯하고 있는 것은 理解하기 困難하다.

죽이지 않고, 乳酒를 겨드랑 밑에 [그리고] 強酒를[2] 그의 가슴에

【33】 들리고 대리고 오니, 君主는 자고 있었다. **볼홀치**와 **무후리**는 밖에서 말했다. 『당신의 밝고 큰 宮에 빛이 들어 가고 있읍니다. 집에 있는 딸과 아들을 깨우십시요. 罪 있는 사람 罰 받을 사람이 모여 있읍니다. 大明勅을 내리십시요. 당신의 큰 玉宮에 빛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門 있는 집의 창문과 연기통을 열어놓십시요. 심히 苦悶하고 있는 者가 모여 있읍니다. 玉 같은 大勅을 내리십시요』라고 上奏함에, 君主는 일어나셨다. **알하순 홀치**를 御前에 데리고 들어갔다. 君主는 말씀이 없었다. **보홀치 무후리** 두[사람]과 大臣들도 말이 없었다. 그 **알가순 홀치**는 自身 엿주었다. 『七十의 혀를 가진 까치가 지저기며 노래할 때[1], 큰 매가 襲擊해 오면 "장"하는 소리도 낼수 없었다고 합니다.

---

2. sütü-yin sarqud- : suγun-dur inu. erke-tü-yin arqud-i ebčcgün-dür inu. barivulǰu abču irengeküle: [B 135] Making him take spirits at his armpit for the Fortunate One and spirits on his chest for the Powerful One. [OA 167]振舞酒をその腋の下に,馳走酒をその胸にもたしめて連れて來れば,[KM 41]洪福のある人の酒を腋の下に, 力のある人の酒を胸に抱いて連れ來ると. 이 句節에서 sütü-yin sarqud와 erke-tü-yin sarqud의 解釋이 各者 다르다. 먼저 sütü의 意味를 正確하게 把握하고 있지않다. sütü는 「젖(乳)」을 意味하는 낱말이다: sütü=*avec du lait, de lait:* aigu affilé, tranchant [KD 1427]. 그리고 sütü <sün-tü로 생각되는데 sün은 [KD 1421] lait를 意味하기 때문에 sütü-yin sarqud는 一種의 젖을 原料로한 술로 생각된다. cf. tur. süt=Milch (Brockelmann, op. cit). 이렇게 볼 때 erke-tü sarqud도 어떤 强酒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B, KM]는 sütü를 P_2. G. U의 sutu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sütü를 그대로 忠實히 飜譯한다면 위와 같은 筆者의 解釋도 可能하지 않을가 생각된다.

【33】 dalan kele-tü čaγčaγai čaγčin dongγudqui-dur ǰaγalamai mergen-i toγolin dobtolan ireküi-dür ǰang gekü daγun-iyan γarγan ese čidaba kelen: [B 135]는 čaγčaγai čaγčin을 原語 그대로 固有名詞 혹은 鳥名처럼 飜譯하고 있으나 (When the seventy-tongned Caγčaγai Caγčin sings,), čaγčin을 動詞 čaγči의 conv. modale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čaγči는 現代蒙古語辭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cf. [OA 133—136]. ǰaγalamai는 [RK 463] 參照: ein aubvogelschwarzer adler. mergen는 原뜻대로는 文脈上 飜譯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筆者는 mergen이 先行하는 ǰaγalamai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보고 兩語를 合해서 「큰 매」로 飜譯해 두었다.